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2 Vol. 206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BS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The Classic

부산사랑 희망콘서트

강동석

지휘 | 오충근 (고신대 교수)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연 | 강동석 (바이올린) 박미혜 (소프라노) 김동규 (바리톤)

Program

주페 / 경기병 서곡
F.Suppé / Overture <Light Cavalry>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M.Bruch / Violin Concerto No.1

슈트라우스 /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
J.Strauss / <Mein Herr Marquis> from Operetta "Die Fledermaus"

롯시니 /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마을 최고의 이발사>
G.Rossini / <Largo al factotum> from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 부터> 외 수곡
A.Dvořák / 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2009 | 2 | 12 | 木 | 오후 7시30분 부산KBS홀

BSO Members 제1바이올린 임병원(악장)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조영숙 김희진 이윤영 이은실 서영희 손소영 지희원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황지원(수석) 권아름 배연주 서희은 김신실 이지윤 임나리 비올라 박주연(수석) 한동민 곽유진 이승연 이영화 김주희 첼로 김판수(수석) 김정원 최지양 서송은 김혜은 이원아 김유미 강진희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연(부수석) 박지선 이현정 플루트 최낙주(수석) 김보현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바수운 윤태준(수석) 김동주 호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윤기영(부수석) 이민정 트럼펫 주현(수석) 전상윤 트럼본 이웅희(수석) 박서연 유상미 튜바 김기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 전상천 김윤수 정종혁 이지민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악보 문지은(부수석) 유종호 악기 정종혁

김동규

박미혜

오충근

주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BS 부산은행

후원 KNN 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티켓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3만원

문의 KNN 1577-7600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2009 제5회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회 시리즈

오프닝 갈라콘서트



[연주곡] 헨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싸칼리아, 모츠코프스키/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슈 만/피아노 솔로(빈사육제) 브람스/피아노5중주

2월 13일(금)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부산시향 악장 김동욱, 부산시향 첼로수석 양욱진,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비올리스트 홍웨이 황이 들려주는 브람스 피아노5중주! 제임스 버즈웰, 양고운의 바이올린 듀오!

[출연] 피아노/박종화, 필립케인, 서정원 바이올린/제임스버즈웰, 김동욱 비올라/홍웨이황 첼로/양욱진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라이징 스타-

탁영아 피아노독주회

2월 15일(일) 오후 5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 출신의 세계적 유망주 피아니스트 탁영아의 무대!

회원권 2만원 균일

[연주곡]

하이든, 브람스, 쇼 팡, 주디스 자이몽, 리스트



로렌스 레저 & 백혜선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연주회



Program 1

헨델 오페라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첼로소나타 제1번
첼로소나타 제4번
첼로소나타 제5번

Program 2

모차르트 오페라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첼로소나타 제2번
모차르트 오페라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첼로소나타 제3번

2월 16일(월) 오후 6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역사적인 첼리스트는 생애 한번 이상은 이 곡을 연주한다! 첼로 음악의 신약성서라고 일컬어지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이 곡들에 대해 첼리스트는 피아노가 반주한다고 말하고 피아니스트는 첼리스트가 반주한다고 말할 만큼 첼로와 피아노의 대등한 호흡이 있습니다.

연주시작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마라톤 연주! 그 역사적인 감동의 현장을 함께 하십시오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디너 콘서트

2월 17일(화) 오후 6시30분 | 파라다이스호텔 본관2층 연회장

부산국제음악제의 초청 연주자들이 팬들과 가까이서 만나는 음악회로 식사 후에 음악회가 해설과 함께 진행됩니다.

[사회 및 해설] 백혜선

회원권 15만원 (디너콘서트에 참여해 주시면 부산국제음악제의 후원자가 됩니다)



[연주곡]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첼로/정명화, 피아노/제롬 로웬탈) 등 수곡

페스티벌 콘서트

“멘델스존의 실내악”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곡] 멘델스존/ 4손을 위한 피아노 듀오(한여름밤의 꿈)모음곡 중에서 멘델스존/ 피아노 3중주 제2번 c단조, 멘델스존/ 피아노 8중주

[출 연] 피아노/ 신수정 바이올린/ 제임스버즈웰, 마스코 우소다, 김동욱, 양고운 비올라/ 홍웨이 황, 김가영 첼로/ 양욱진, 민경아

2월 18일(수)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멘델스존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멘델스존 음악만으로 꾸며진 무대로 부산을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나아가는 실내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당타이손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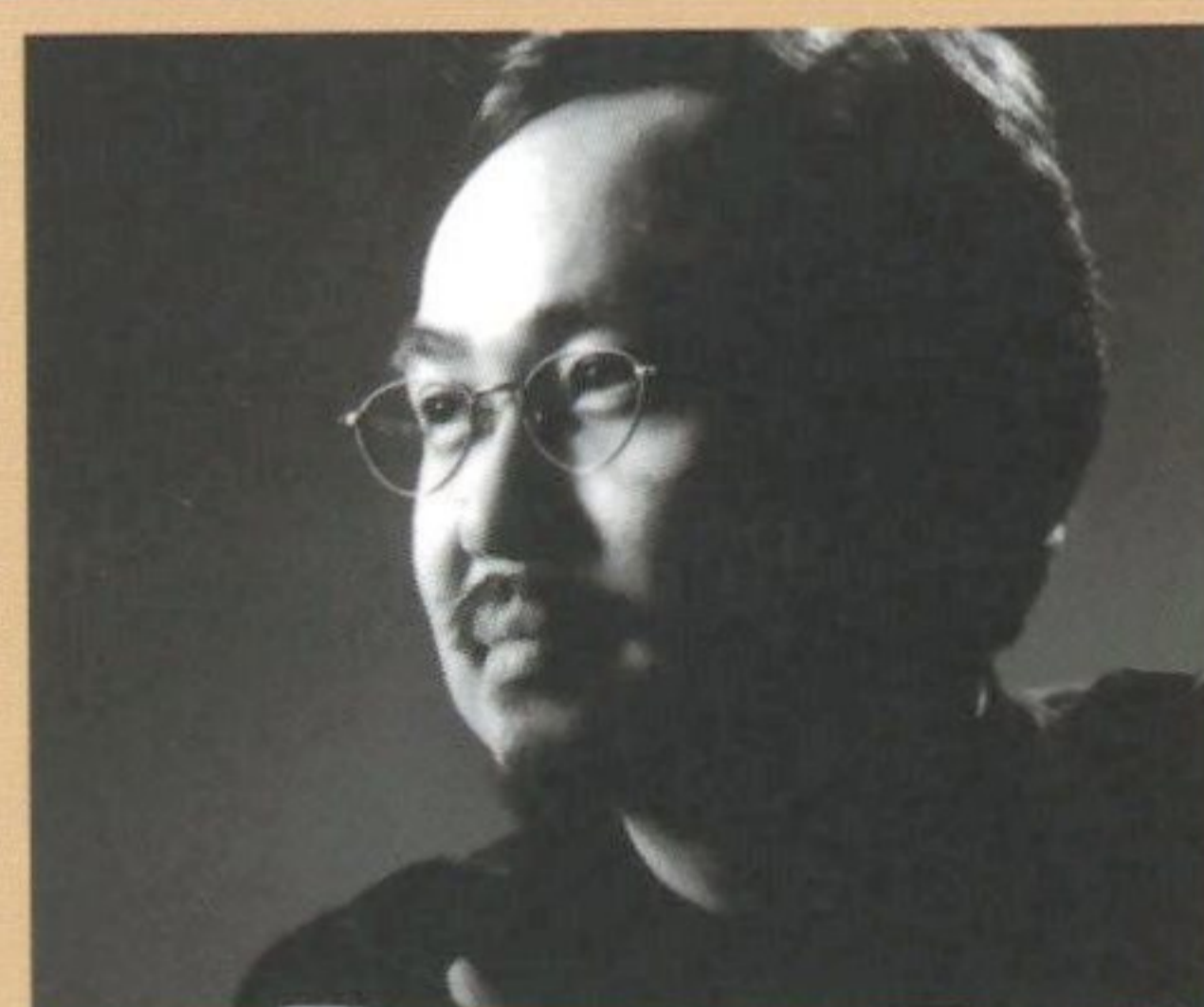
2월 19일(목)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시안계 최초의 쇼팽 콩쿠르 우승자, 베트남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당 타이손 부산국제음악제를 위해 드디어 그가 왔다!!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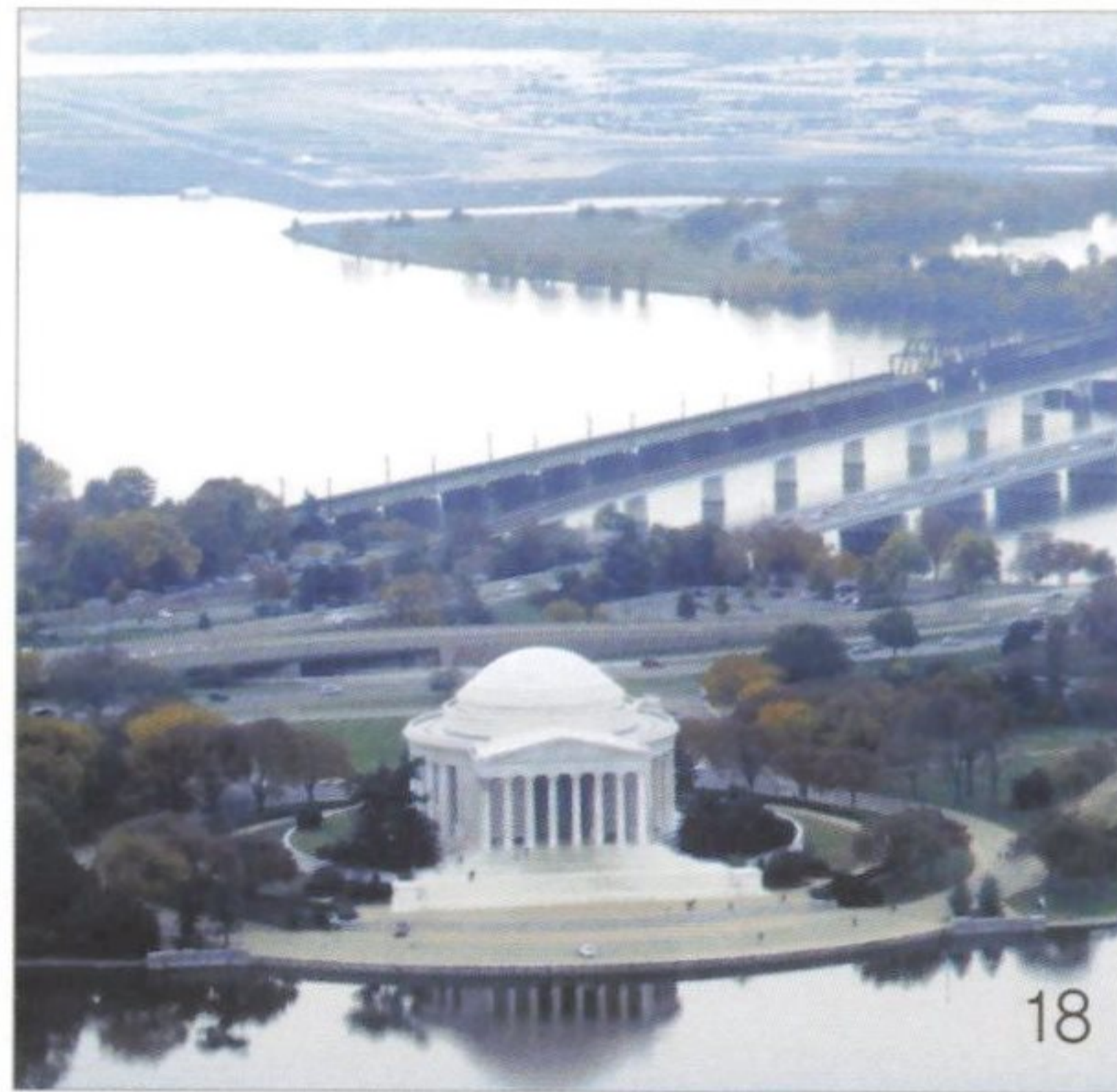
포레/ 2개의 녹턴
라벨/ 모음곡(거울)
쇼팽/ 바카롤레
쇼팽/ 4개의 마주르카 작품17
쇼팽/ 4개의 마주르카 작품 33
쇼팽/ 스케르조 제2번



- 주최 : 부산일보사 KBS 부산방송총국
- 후원 : 부산광역시
- 음악회 문의 및 전화예약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www.busanarts.com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 주관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협찬 : 법무법인 국제, 영남저축은행, Robert Ames LLC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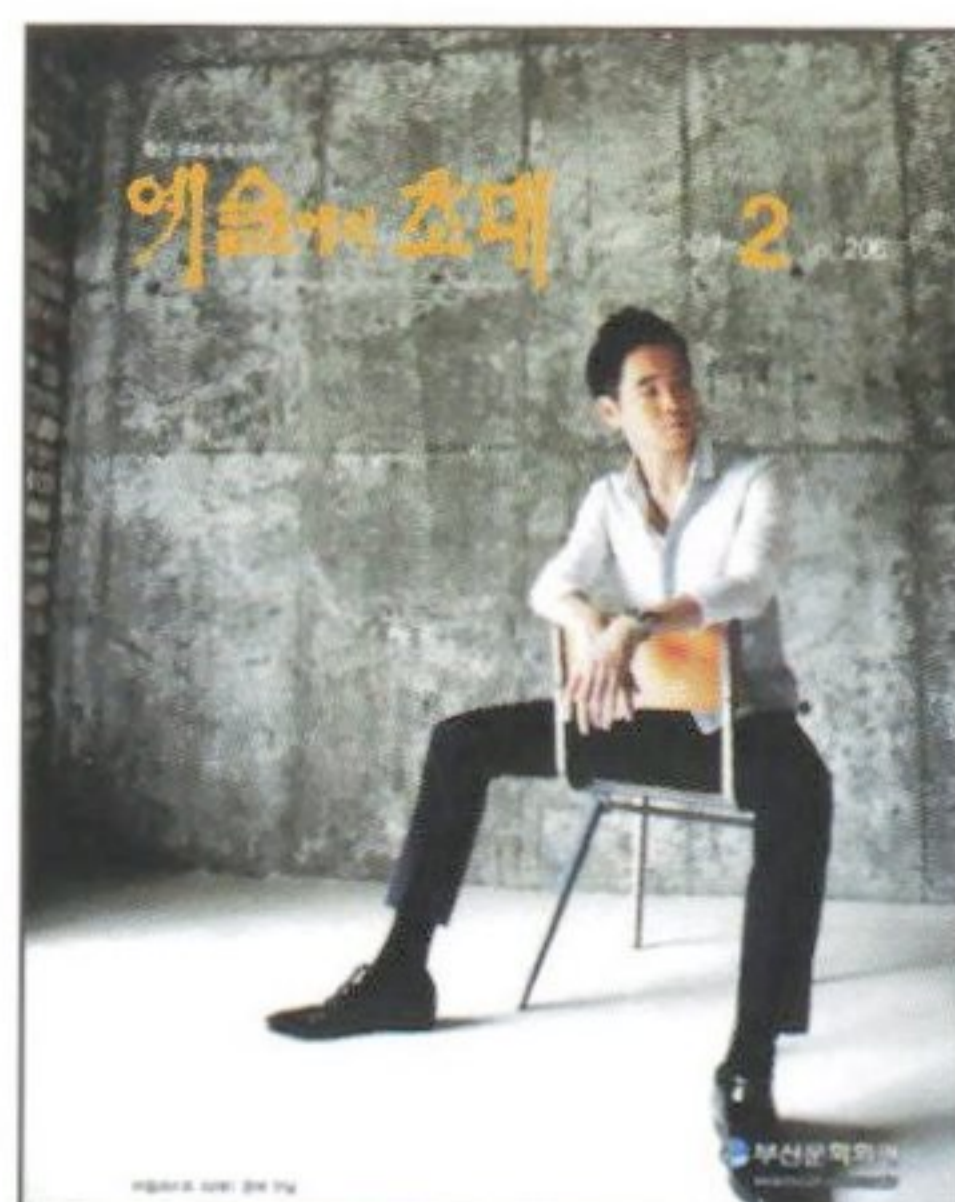


18



28

커버스토리	08	바로크 전령사로 돌아온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프리뷰	10	
반갑습니다	16	신임 부산시립예술단장 배영길 행정부시장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18	미국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DC _ 주종식
행복한 오페라여행	22	오페라의 종류 _ 김홍승
생활속의 관화이야기	24	북한현대판화 여명의 길잡이-함창연 _ 채경혜
황운기의 월드뮤직여행	26	'맨발의 디바' 세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 _ 황윤기
우리는 문화 가족	27	부산에 울려 퍼지는 얼후의 소리 '부산소리연'
그곳에 가면	28	과학꿈나무들의 희망이 영그는 'LG사이언스홀 부산'
프로그램 가이드	30	
나의 애청음반	42	강원도 지방소리 상여소리 _ 권은영
새로나온 책	43	
부산문화회관소식	44	
100자 토크	45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4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0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1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같은 세대 비올리스트 중 가장 주목받는 한국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고음악의 신비를 전해주는 바로크의 전령사가 되어 2월 부산음악 애호가들을 찾아온다.



February 2009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Monday	Tuesday
1	2 대 2009 부산, 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식 및 문화공연 18:0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888-3542) 소 2009 부산, 후쿠오카 우정의 해 협약식 16:0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888-3542)	3 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19:30 초대/정미령(011-882-1895) 소 부산예능아카데미 정기연주회 18:00 우희경(019-621-5305)
8	9	10 중 멜로매니아 가족음악회 제 4회 바리톤 한성권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멜로매니아(011-9543-9378)
15 중 2009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 탁영아 피아노 독주회 17:0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소 제 10회 경희바이올린 정기연주회 15:00 무료/김경희(626-2335, 011-579-2339)	16 중 2009 부산국제음악제 '로렌스 레셔 & 백혜선 베토벤 첼로스나타 전곡연주회' 18:00 5만원 · 4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17 대 한낮의 유콘서트 '크로스오버 바이러스' 1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
22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로크 콘서트-미스테리오스' 17:0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00 초대/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23 소 M & M 오르프 정기연주회 & 김진미 바이올린 클래스 연주회 19:00 무료/김희령(016-673-1631)	24 소 올리브 피아노 정기연주회 19:00 무료/정다운(744-2555, 011-9289-8602)
3/1 소 늘소리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7:00 무료/박필희(624-1535, 010-7216-1535)	3/2 중 토브여성합창단 제 1회 정기연주회 19:30 이일경(011-865-4918)	3/3

국제회의장

■ 제 2기 시민클래식 교실

2월 4일(수) 순수한 음악으로 본 세상-인상주의
 2월 11일(수) 발레음악의 아름다움-백조의 호수, 불새
 2월 18일(수) 오페라탐사-카르멘 I
 2월 25일(수) 오페라탐사-카르멘 II
 강사 :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6	7
	<p>소 메트로 제 5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이진희(611-1109, 011-867-3625)</p>	<p>중 재부 이화여대 음대 20주년 기념 '귀향연주회' 19:30 초대/강영순(010-9669-5449)</p>	<p>중 부산클라리넷라이어 협주곡의 밤 19:30 무료/황남용(010-8007-8087)</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극단 정행심 1인극 '망초 꽃 향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11	12	13	14
	<p>대 뉴프라이모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1만5천원/뉴프라이모케스트라(816-1104)</p> <p>중 2009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p> <p>소 김은희 피아노 스튜디오 정기연주회 19:30 무료/김은희(010-9269-5567)</p>	<p>대 2009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 갈라 콘서트'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p> <p>중 바다 그리고 구름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김인순(017-549-7969)</p> <p>소 피아노 스타 제 4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은희(011-830-8014)</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18	19	20	21
<p>대 2009 부산국제음악제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페스티벌 콘서트-멘델스존의 실내악'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p> <p>소 Love Classic 19:30 무료/이대성(010-2302-2432)</p>	<p>대 2009 부산국제음악제 '피아노의 가장 당 타이손 피아노독주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p> <p>소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신춘음악회 크로마하프 설명연주회 18:30 유경해(031-427-4388, 010-2230-3709)</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아티스트와 함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소 피아니스트 김미연 클래스 정기연주회 19:30 무료/김미연(011-565-5167)</p>	<p>대 피아니스트 서해경 독주회 'Night and Dream' 19:30 6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인아트(635-6904)</p> <p>소 토요일상설무대-버سم새예술단 '전통가락과 춤의 향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25	26	27	28
<p>소 김민재, 배미옥 제자 발표회 19:00 무료/배미옥(017-545-9903)</p>	<p>중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희망을 향한 노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대 어린이음악교육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1:00, 16:00, 19:00 2만5천원 · 2만원/하늘극단(1588-3828)</p>	<p>대 어린이음악교육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4:00, 16:00 2만5천원 · 2만원/하늘극단(1588-382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9중주 '조이양상블'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3/4	3/5	3/6	3/7
	<p>중 Ensemble di Mare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20:00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4만원/AN시티(1644-4484)</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5:00, 19:30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4만원/AN시티(1644-4484)</p>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고음악의 신비를 들려주는 바로크의 전령사로 돌아온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본능적이고 관객들을 열중하게 하며 마음을 읽는 강렬한 공연 - 뉴욕타임즈

테크닉적으로 완벽한 공연 - LA타임즈

용재 오닐의 분명한 열정과 테크닉을 보여준 놀랍도록 탄탄한 공연 - 덴버 포스트

놀라운 비올라 연주다. 오닐의 풍부한 음색과 정확한 음정, 그리고 섬세함은 비올라라는 악기로부터 나오기 힘든 것들이다 - 달라스 모닝뉴스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2월 22일 고음악의 신비를 들려주는 바로크의 전령사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찾아온다.

2004년 7월, 호암아트홀에서 국내 데뷔 무대를 가진 리처드 용재 오닐은 이듬해 KBS '인간극장'에서 전쟁고아로 미국에 입양된 어머니와 함께 소개되면서 우리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1,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방송되었고 뜨거운 호응으로 속편이 제작되기도 했다.

최근 화제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깜짝 출연해 다시 한번 음악애호가들을 놀라게한 리처드 용재 오닐은 뛰어난 음악성과 함께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연주자이다. 2005년 유니버설 클래식에서 발매한 1집 앨범은 한국 클래식 차트에서 골드 디스크를 수상했고 이어 2006년에 발매한 2집 '눈물'은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했다. 2007년 발매한 3집 'Winter Journey 겨울여행'은 클래식 아티스트로서 큰 영예인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다시 한 번 플래티넘을 기록하였다.

용재 오닐은 같은 세대의 비올리스트 중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으로 일찍부터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남가주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줄리어드 음악원의 아티스트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최초로 입학해 놀라게 했다. 2006년 미국 클래식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어워즈를 수상한 용재 오닐은 프레드 웨리 스트링 콰르텟의 멤버로 참여한 쇤베르크 콰르텟 콘체르토 음반으로 2006 그라미 어워드의 베스트 솔리스트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뉴욕 카네기 홀,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의 살 코르토와 서울 예술의 전당, 에머슨 스트링 콰텟과 함께 한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레온 피셔와 함께 한 에이버리 피셔 홀 연주 등 세계의 가장 명성 있는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리처드 용재 오닐은 앙상블 연주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동안 줄리어드, 파르네리, 멘델스존, 오리온 스트링 콰르텟, 빈-베를린 앙상블 등의 체임버 뮤직 단체들과 길 샬함, 초량린, 정경화, 조슈아 벨, 에드가 마이어, 게리 호프만, 스티븐 이설리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주하며 그의 진가를 세계무대에 알렸다.

2008년에는 젊은 거장 유로프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윌튼 비올라 협주곡 협연을 성공리에 마쳐, 아티스트로서 그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다. 현재 그는



링컨 센터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II의 유일한 비올라 주자이자, 체임버 그룹 카메라타 파시피카의 수석 비올리스트, 세종 솔로이스츠의 수석 비올리스트 겸 솔리스트, 우리음악계 새로운 클래식 스타 그룹으로 떠오르는 앙상블 디토의 리더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년간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은 예술에 대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헌신하고 있는 그는 2007년 UCLA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4집 음반 레코딩에 함께 했던 AMK(알테 무지크 켈른)의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음반에 수록된 바로크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2006년 가을, 첼리스트 클라우스-디에터 브란트에 의해 결성된 고음악 연주 앙상블인 AMK는 바로크 음악만의 독특한 음색을 재현하기 위해 18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정밀한 악기들을 연주한다. 과감하게 정통 바로크 악기로 전 프로그램을 연주하는 용재 오닐은 AMK 멤버와 함께 모던악기가 줄 수 없는 거트현의 따뜻한 울림과 정통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2009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 2월 12일-2월 22일
- 부산문화회관,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



제임스 버즈웰



홍웨이 황



필립 케인



박종화



양욱진



탁영아

차가운 부산의 겨울을 음악회의 열기로 채워줄 클래식음악의 대향연 부산국제음악제가 2월 12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펼치는 실내악축제로,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1회부터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을 맡아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신수정, 첼리스트 정명화, 1980년 아시안계 최초로 쇼팽콩쿠르에서 우승한 베트남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당 타이손과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 챔버뮤직소사이어티 등 부산의 대표적인 연주단체를 초청,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올해 부산국제음악제는 2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프닝 갈라콘서트'로 첫 무대를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뉴잉글랜드음악원 바이올린 교수이자 인디애나움대 지휘 교수를 겸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연주자 제임스

버즈웰, 홍콩필하모니 역사상 23살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비올라 수석이 되면서 화제를 모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홍웨이 황,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빼어난 피아노교수법으로 각광받는 피아니스트 필립 케인,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과 첼로수석 양욱진, 국제 유명콩쿠르 입상으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과 피아니스트 서정원 등이 출연해 솔로, 듀오, 트리오, 5중주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2월 15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라이징 스타'에서는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유망주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무대에 오른다. 탁영아는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라는 평을 받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날인 2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세계적인 연주자인 첼리스트 로렌스 레써와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첼로음악의 신약성서라 일컫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연주회'를 펼친다. 뉴잉글랜드음악원 교수로 있는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써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 카사도 콩쿠르 1위 등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그의 70세 생일을 기념해 미국 보스톤과 뉴욕, 텍사스, 캐나다 캘거리에서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함께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인 백혜선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위없는 3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은상, 윌리엄 카펠 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다.

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페스티벌 콘서트 '멘델스존의 실내악'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과 양고운, 김동욱, 마스코 우쇼다, 비올리스트 홍웨이 황, 김가영, 첼리스트 양육진, 민경아가 들려주는 현악 8중주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필립 케윈, 신수정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연주, 피아노 3중주 등 다양한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서울 음대와 빈 예술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교육자로 후진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피아니스트 신수정은 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사상 최초의 여성학장으로 취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본 도호음악원과 러시아 레닌그라드음악원을 졸업하고 스위스로 건너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시게티를 사사한 바이올리니스트 마스코 우쇼다는 최근 일본 사이토키엔 페스티벌에서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뉴잉글랜드음악원 교수로 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손 독주회는 2월 19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974년 베트남을 방문했던 러시아 피아니스트 아이작 카츠에게 발탁되어 차이코프스키음악원에서 수학한 그는 쇼팽콩쿠르 우승 이후 40여개가 넘는 나라를 오가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당 타이손은 이번 무대에서 쇼팽의 바카랄레, 4개의 마주르카 작품 17과 작품 33, 스케르초 제 2번 올림나단조 등 뛰어난 해석의 쇼팽 연주곡을 들려준다.

이밖에도 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스코 우쇼다와 피아니스트 제롬 로웬탈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가 열리며, 앞서 2월 17일 저녁 6시 30분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에서는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들을 위한 디너콘서트가 마련된다.



백혜선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 백혜선이 전하는 2009 부산국제음악제 백배 즐기기

“부산은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부산에 오는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겨울 바다를 마주하는 순간 받는 감동은 정말 압도적이니까요.”

“프로그램은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풍성합니다. 오프닝 갈라콘서트는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화, 부산의 음악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비올리스트 홍웨이 황이 무대에 올라 다양성이 중심이 된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라이징스타에는 부산 출신의 유망주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가능성 넘치는 연주를 펼칩니다. 정명화, 신수정, 제롬 로웬탈이 참여하는 후원자를 위한 디너 콘서트,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페스티벌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죠. 또 베트남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당타이손의 피아노 독주회는 겸손과 순수함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연주로, 가슴 뭉클한 무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클래식 공연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감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로스오버나 엔터테인먼트와는 달리, 책을 읽는 듯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관객들이 음악회에 오기 전에 음반을 꼭 들어보고, 작곡가의 시대적인 배경과 국가, 누구에게 헌정한 곡인지 알고 감상하길 권합니다. 클래식이 길고 지루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09 웰빙 콘서트 시리즈 I -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해설 및 진행 장일범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선사하는 '웰빙콘서트'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2009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2009년은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말러스페셜리스트 김문경의 해설로 이탈리아 오페라와 말러 음악여행을 떠난다.

그 첫 무대로 2월 12일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벨칸토 오페라 작곡가인 도니체티, 벨리니, 로시니 오페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오페라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고도의 기교와 맑은 음색을 자랑하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청교도' 등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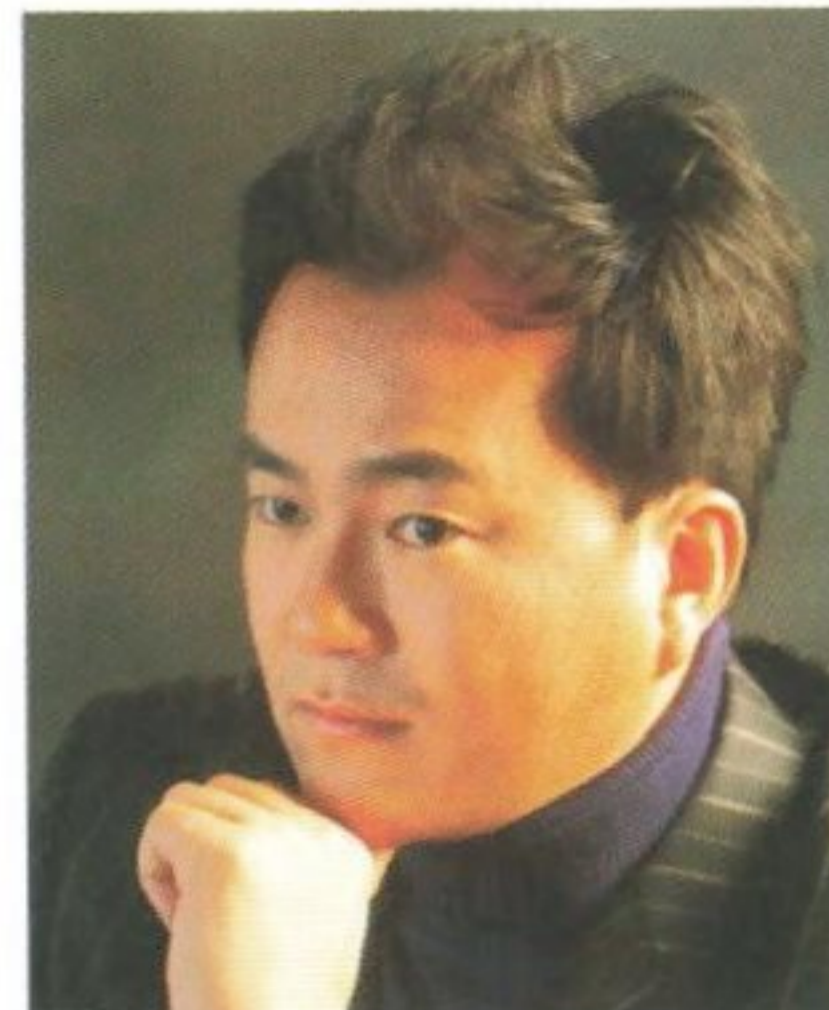
페라 속 대표 아리아와 오케스트라 곡을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해설가 장일범은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생생클래식', CBS-TV On stage 'Forte' 프로그램 진행자로, 헤이스 마리아 칼라스 홀 음악감독, 고양 아람누리토크쇼 '장일범의 예술가와 만나고 싶다',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오후의 콘서트' 등의 무대 진행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 무대를 위해 국립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소프라노 오미선, 독일 Deutsche Oper am Rhein Opernstudio, Hagen 시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한 테너 전병호, 베켄바흐 국제콩쿠르 성악부문 1위, 파싸우 국제성악콩쿠르 가곡부문 1위에 입상하고 독일 등지에서 활동한 바리톤 김종화, 2007 Diplme superieur D'xcution de Chant(최고연주자 과정), 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를 졸업하고 귀국한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이연기, 국립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베이스 함석현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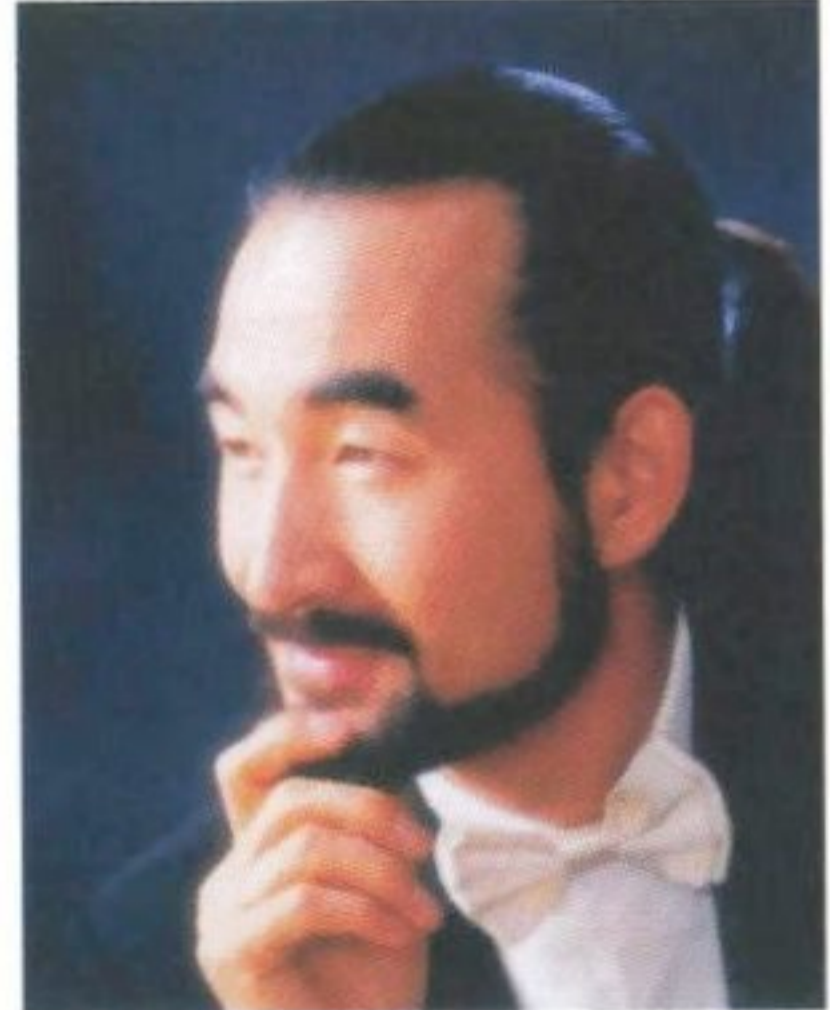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이연기



베이스 함석현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2월 12일, 4월 29일, 6월 9일, 10월 8일 4회 공연 관람권 30,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9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The Classic 부산사랑 희망콘서트

-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 KBS 부산홀



오충근



강동석



박미혜



김동규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향토기업과 시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경제위기 해소를 기원하는 2009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The Classic 부산사랑 희망콘서트'가 2월 12일 KBS 부산홀에서 펼쳐진다.

고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

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소프라노 박미혜, 테너 김동규가 출연해 멋진 앙상블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과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6', 스트라우스 오페레타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 드보르작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등 경쾌하면서도 흥겨운 곡으로 희망을 노래한다.

'바이올린의 음유시인' 강동석은 탁월한 예술성과 투철한 음악가정신, 대가적 기교를 가진 '신동 바이올리니스트'로 일찍부터 재능을 드러냈다. 17세에 나이로 미국 음악계가 주목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재단 콩쿠르와 워싱턴 메리웨더 포스터 콩쿠르에 연달아 우승하면서 주목받은 강동석은 이후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인 몬트리올 콩쿠르와 런던 칼 플레쉬 콩쿠르, 브뤼셀 퀴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하며 국제무대에 명성을 떨쳤다. 강동석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2006년부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음악감독을 맡아오고 있다.

'크리스탈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소프라노 박미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내셔널콩쿠르에서 최고상을 수상, 1988년 '라인의 황금' 보글린데 역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데뷔무대를 가졌다. 박미혜는 그동안 도밍고, 파바로티, 카레라스의 'Three Tenor Concert', 바리톤 드미트리 호보르스토프크키와의 듀오콘서트, 호세 카레라스와의 듀오콘서트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미혜는 1998년부터 오스트리아 빈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전속 솔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열정의 바리톤' 김동규는 연세대학교,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1991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했다.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오디션에 한국인 최초로 통과하여 오페라 '오텔로' '사랑의 묘약' 등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서기도 한 김동규는 그동안 한국방송대상 성악가상,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7년 산업자원부 선정 국가 브랜드 파워 성악부문 1위로 선정됐으며, 현재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KNN(1577-7600, www.knn.co.kr)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I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아티스트와 함께

- 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유리엘 세갈



마스코 우쇼다



제롬 로웬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겨울 부산 최고의 실내악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아티스트와 함께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유리엘 세갈이 지휘하고 줄리어드 음대 교수 제롬 로웬탈과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마스코 우쇼다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만남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높다.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지휘자 유리엘 세갈은 1969년 뉴욕의 국제 미트로폴로스 지휘 콩쿠르 1위를 수상하고 그동안 미국 켄터키의 루이스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필하모니아 헝가리카와 본머스 심포니의 수석지휘자, 이스라엘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의 수석객원지휘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일본 오사카의 센추리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8년동안 이끌었고 현재 명예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바그너로부터 ‘뛰어난 풍경화가’로 격찬 받았던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서곡 작품 26을 시작으로 베토벤 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합창 환상곡’, 헝가리 색채와 터키풀의 화려한 기교가 물씬 풍겨나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터키’ 작품 219, 낭만적이고 우아한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가장조 ‘이탈리아’ 작품 90으로 화려한 음의 향연을 펼친다. 특히 베토벤 ‘합창 환상곡’은 독일 5개 도시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시립합창단과 줄리어드 음대 교수로 있는 제롬 로웬탈의 피아노 협연, 소프라노 김경희, 정수임, 알토 박소연, 테너 양승엽, 테너 정종철, 베이스 하병욱이 솔리스트로 출연, 38세 청년기 베토벤의 강렬한 열정과 고뇌를 들려준다.

바이올린 협주곡 ‘터키’를 협연할 마스코 우쇼다는 1963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니치 음악콩쿠르 1등을 시작으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다. 당시 모스크바의 타스통신에서 ‘가장 위대한 새로운 재능과 뛰어난 서정성을 가진 연주자’라는 격찬을 받은 마스코 우쇼다는 현재 보스턴에 거주하며 뉴잉글랜드음악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제롬 로웬탈은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짙은 호소력으로 청중들을 끊임없이 매혹시키고 있는 미국 최고의 피아니스트이다. 볼자노, 다름슈타트, 브뤼셀 등 3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제롬 로웬탈은 1963년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미국 데뷔무대를 가진 이래 세계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문의 부산시립교향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희망을 향한 노래

-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8년 '사랑' 을 테마로 다양한 무대를 열어준 부산시립합창단이 2월 26일 '희망' 을 테마로 한 '희망을 향한 노래' 로 2009년 본격적인 연주 일정을 시작한다.

음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을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희망을 꿈꾸며 즐거운 마음으로 1년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기존의 정통 미사가 아닌 Rock풍의 흥겨운 M. 가드너의 미사곡 'Little Rock Mass' 으로 '희망을 향한 노래' 를 시작한다.

1부에서는 M. 가드너의 미사곡 외에 '내 눈을 들어 살피니(G.G.Ramsay)' '아무 말도 없었네 (He never said, W.M.Schoenfeld)' '두 개의 히브리 노래(Two Hebridean Songs)' '장엄한 말들(Magnificent Horses, 몽고민요)' 등을 독주악기와 함께 합창무대를 꾸미고, 신세계 교향곡, 호른 협주곡(W.A.Mozart)을 합창 심포니로 편곡, 새로운 무대를 열어준다. 독주악기와 함께 꾸미는 합창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권남희, 첼로 김판수, 오보에 부수석 류재환, 플루트 비상 임단원 유미영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2부에서는 새로운 탄생과 봄의 기운이 넘치는 한국가곡들과 퍼퓸러한 대중가요 속에 아름다운 합창의 화음이 어우러지는 곡과 1부 독주를 선보인 부산시립교향악단 4명의 단원이 기악앙상블팀을 구성,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봄노래' 와 엘가 '사랑의 인사' 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환희를 연주한다.

그외 '봄을 향한 노래' 로 강이 풀리면 (오동일), 봄의 신앙(Früehlingsglaube, F.Schubert), 봄이 오면(김준범 편곡)을, '희망을 향한 노래' 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노라면, 상록수를 들려준다.

· 지휘, 해설/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부산시립합창단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문화도시

신임 부산시립예술단장

배영길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2009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한 배영길(裴泳吉) 부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부산 시민들과 만난다.

“지난해는 경제산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 경제 불황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닥친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 부산시립예술단장이라는 새로운 중책을 맡은 만큼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며 나아가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고 부산의 미래도약을 준비하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배영길(裴泳吉) 행정부시장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강력한 업무추진 능력을 가진 행정전문가이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 국무총리실을 거쳐 1996년부터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장과 재정관, 교통국장,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교통공사 부사장 등 부산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부산 발전에 힘써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부산의 문화와 예술, 역사 행정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탈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부산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평소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해온 배영길 행정부시장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면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그를 기억하는 동료, 직원들은 작은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그의 열정에 매번 놀라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한다.

“2009년은 부산문화재단 출범으로 부산문화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립예술단은 물론 전체 문화 예술인들이 부산의 문화 진흥을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 가정에서 문화 생활비 지출

을 가장 먼저 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배영길 행정부시장은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부산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찾아가는 예술단’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 정서함양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국장 재임 시 광저우, 항저우에서 열린 부산시 관광 설명회에 부산시립예술단과 동행한 바 있는 배영길 행정부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열어준 부산시립예술단의 모습을 보며 문화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업무차 외국에 나가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 보면 21세기에는 독창적인 문화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된다는 말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만든 영화 한편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부산은 그런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부산의 특색을 담은 부산다운 문화를 만들고 가꾸는 조력자로 부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나갈 계획이다.

평소 바둑을 즐겨온 배영길 행정부시장은 부산시청 기우회 회장을 맡고 있을 만큼 바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10회를 이어온 부산시민바둑대회 창설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민바둑대회가 시민축제로 자리잡는 데는 그의 공이 컸다.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아는 것은 좋아 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 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는 공자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는 그는 그동안 부산시민바둑대회를 통해 느꼈던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이제 공연장에서도 함께 나누고 싶다.

2009년 부산 시민들에게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하는 부산시립예술단장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배영길 행정부시장. 아는 만큼 소신대로 행동하는 그의 열정에 부산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워싱턴백악관

미국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DC



2차대전 기념공원과 링컨기념관



미국 국회의사당

주 종 식 | 테너,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 음악감독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New York? 혹은 L.A 아니에요? 하고 답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귀에 이 두 도시가 많이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어떤 매력을 가진 도시인지 둘러보도록 하자.

필자의 직업은 성악가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에서 10년 동안 학업과 연주활동을 했고, 워싱턴에서는 연주활동 외에 한인감리교회에서 음악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필자가 워싱턴으로 이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다. 처음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은 다른 어느 미국 대도시들처럼 육중한 무게의 콘크리트와 철골로 지어진 백층 자리 빌딩들 대신 전 세계의 유명한 건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 중 고대 로마제국의 판테온을 본뜬 제퍼슨 메모리얼과 그리스의 신전을 본뜬 링컨 메모리얼 등을 보면서 유럽의 한 도시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이것 외에도 워싱턴은 유럽의 도시 분위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로모양이 유럽도시들처럼 광장 중간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이른바 방사형 도시인

데 이것은 200여년 전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이 프랑스 출신 피에르 랑팡으로, 이 도시를 설계할 당시 그 모델과 아이디어를 자신이 만든 프랑스식 정원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워싱턴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식민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미국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한 거인들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뚜렷한 사계절과 풍부한 자연은 이곳을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 만든다.

워싱턴 DC는 독립전쟁 직후 수도로 정해지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명명하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콜럼비아 지역'이란 뜻의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District of Columbia) 인데 이것을 줄여 'Washington D.C' 로 부른다.(Columbia: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군의 수호 여신으로 여겨졌었다)

워싱턴 DC의 크기는 177평방Km로 우리나라 서울시의 30% 정도의 크기다. 전체 면적의 10.2%는 강과 저수지 등의 물이며, 버지니아 주와의 경계는 포토맥 강이, 메릴랜드 주와의 경계는 아나코스티아 강이 각각 흐르고 있다.

워싱턴의 지정학적 위치는 북위 38도 53분, 서경 77도 2분



워싱턴시가



제퍼슨기념관

으로 서울보다 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 평균 기온은 11.7도로 서울보다 높다.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계절에 따른 온도차는 적은 편이다.

보통 한 국가의 수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은 기후와 자연환경인 것 같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듯하다. 캘리포니아처럼 기후는 좋지만 황량한 느낌이 있지도 않고 중부내륙처럼 산림이 풍성하지만 산악지형도 아니다. 또한 천연재해도 비교적 적은 완벽한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다.

이곳에 서구인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400년 전 부터이다.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포카혼타스'를 기억할 것이다. 이 만화영화의 소재는 바로 이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만든 것이고, 포카혼타스 역시 실존했던 인디언추장의 딸이었다.



케네디 센터

워싱턴 DC는 L.A, New York 등과 더불어 미국의 3대 관광지의 하나이다. 워싱턴 DC에는 많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정부 주요부처의 청사가 있고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국회의사당, 우리에게 연필처럼 생겨서 유명한 워싱턴 모뉴먼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 마틴 루터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로 유명한 링컨 메모리얼 등이 있다.

200년 넘게 대통령의 주거 및 집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악관은 미국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백악관의 위치와 모습을 결정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었지만, 백악관의 첫 주인은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 대통령이였다. 백악관에는 6층에 걸쳐 132개의 방과 35개의 욕실, 이를 연결하는 문이 412개, 계단이 8개, 엘리베이터가 3개, 벽난로도 28개나 있다. 백악관에는 5명의 전문요리사가 상주하며 140명의 식사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백악관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데, 9·11 테러 이전에는 일일 방문권을 배부 받아 선착순으로 둘러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6개월 이전에 신청한 그룹방문만 허용된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는 유명한 케네디 센터가 있다. 미국 수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건립이 결정되었고, 뒤를 이은 케네디 대통령은 기금모금 등을 하는 등 공연장 건립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암살범의 총탄에 숨진 케네디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공연장의 건립은 보지 못했지만 1971년 9월 8일 개관하면서 케네디의 문화사랑과 미국



인디언 역사박물관



워싱턴 기념비

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케네디 센터’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한다.

9월 8일 개관 첫 공연으로 오페라 씨어터에서는 Leonard Bernstein의 뮤지컬 ‘Mass’ 초연작이 올려졌으며, 이튿날인 9일 콘서트홀에서는 Antal Dorati가 지휘하는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개관기념연주회를 가졌다. 다음날 오페라 씨어터에서는 Alberto Ginastera의 오페라 ‘Beatrix Cenci’ 초연무대가 열리기도 했다.

아름다운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는 높이 30m, 길이 190m, 폭 91m의 정방형 구조이다. 지하철과는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음향이 훌륭하며 포토맥 강변을 바라보는 테라스가 멋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네디 센터는 케네디 오페라 시어터, 아이젠하워 시어터, 콘서트 홀 등의 대형 공연장들과 테라스 시어터 등의 소형공연장, 문화관련 단체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다양한 음악, 무용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National Symphony Orchestra의 주공연장인 콘서트홀은 케네디 센터에서 가장 큰 공연장으로 총 2,581석 규모이다. 1997년 리노베이션작업으로 최신설비의 공연장으로 변모했다. 오페라 씨어터는 2,318석 규모로 오페라, 발레, 대형뮤지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Washington National Opera의 주공연장으로, 매년 Kennedy Center Honors 시상식이 여기서 거행된다. 워싱턴 국립오페라단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단장과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밖에 아이젠하워 씨어터는 1,142석으로 연극, 뮤지컬, 소규모 오페라, 발레, 현대무용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케네디 센터가 명실공히 국립극장의 자리임을 반증하듯 운영진과 후원회 또한 막강함을 보여준다. 우선 명예회장들을 보면 로라 부시 전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서 힐러리 전 대통령 부인 등 역대 전, 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명예 의장을 맡고 있다. 대개의 미국 연주단체나 공연단체가 운영을 위해 후원자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케네디 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인사들이 기부하기도 하고 모금활동도 펼친다.

이밖에 워싱턴 DC 를 대표하는 것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재산가였던 ‘제임스 스미스’가 전 재산을 헌납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인 스미소니언 재단은 미국사, 자연사, 항공 우주박물관과 프리어 색클러 갤러리 등 18개의 박물관, 동물원, 9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워싱턴의 문화 관광 분야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입장료가 무료인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갤러리에는 1억 4천만여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 2천 5백 만 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간다.

지난해 한·미 비자면제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을 방문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만약 미국방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워싱턴 DC를 방문해보기를 권한다. LA와 뉴욕과는 다른 미국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페라의 종류

김 홍 승 |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과 교수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분은 오페라를 몇 번이나 보러 갔다 왔는가 궁금하다. 만약 '아직 난 오페라를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 종류의 오페라를 보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

'오페라 부파' 라는 것은 18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생긴 희극으로서 초기의 베네치아 오페라에서는 막간에 익살스러운 내용의 짧은 연극을 넣고 인터메조(Intermezzo)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인기를 얻어 나폴리시대에는 독립된 오페라가 되어 '오페라 부파' 로 불렸다. 영화로 '오페라 부파' 를 표현한다면 코믹 영화 썸 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페르골레지(G.B.Pergolesi)의 <마님이 된 하녀>(La Serva Padrona), 로시니(G.A.Rossini)의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 모차르트(W.A.Mozart)의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 <돈 조반니>(Don Giovanni), 도니제티(G.Donizetti)의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 등이 있다. 오페라 명만 들어도 '하녀가 마님이 되었다?' 라던가 '사랑의 묘약!' 게다가 '세빌리아의 이발사' 와 '피가로의 결혼' 은 등장인물도 거의 같고 내용 또한 이어진다.

하지만 작곡자도 다르고 내용상 후편인 피가로의 결혼이 전편인 세빌리아의 이발사 보다 30년 빨리 나왔다는 사실! 내용도 재미있지만 이런 점들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자! 오페라 부파이야기는 이 썸 하도록 하고 그럼 오페라 부파 말고는 어떤 오페라 종류가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오페라의 종류

◆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

18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로 정극으로 불리운다. 신, 왕, 영웅들을 테마로 주로 사용한다. 줄거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원이나 전장, 엄숙한 의식장면 등 갖가지 장면들이 도입되며 극은 주역 중 한 사람이 영웅적인 행위나 숭고한 자기희생을 함으로써 결말지어진다. 레치타티보¹⁾와 아리아를 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창이나 합창은 간혹 사용된다.

◆ 그랜드 오페라(Grand Opera)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아에 대해 프랑스에서 나타난 대가극이다. 19세기 프랑스적 특징이 담긴 양식으로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성질의 비극을 테마로 한다. 중산층의 수와 세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었으며 그것은 흥분과 오락을 찾아 극장으로 모여드는 비교적 교양 없는 청중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본은 가능한 한 발레와 합창, 그리고 군중장면을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오페라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오페라에 그랜드 오페라라고 붙는데, 이것은 그저 규모를 뜻하는 말일 뿐 원래의 그랜드 오페라의 의미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

◆ 오페레타(Operetta)

오페레타는 경극이라고도 하며 오페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19세기 중엽, 처음 창시되었다. 극적인 진행에 있어서 대사를 동반하며 여기에 노래와 무용이 들어가긴 하나 음악적인 내용은 낮은 편이고 오케스트라도 소규모이다.

아니! 이게 오페라 종류의 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오페라엔 더욱 더 많은 종류가 있다. 하물며 비슷한 특징의 종류이 나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며 또 각각의 특색이 있다. 하지만 오페라 부파를 포함한 저 4가지의 종류는 현재에 가장 많이 나뉘는 종류들이니 저 정도만 알면 괜찮지 않나 생각해본다.

자! 이쯤 되었으면 “오페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외쳐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가?

그런 분들을 위해 오페라와 친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1. 지난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단은 요약된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자!

많이도 아니다 한번만! 줄거리가 머릿속에 입력된 당신은 공연 중에 자막 판을 보기위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대사나 레치타티보(Recitativo) 부분에서는 무대와 대사에만, 음악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때는 음악에만 신경을 쓴다.

오페라는 보통 2~3시간을 공연하는데 공연 내도록 음악과 자막 두 가지를 다 신경 쓴다면 공연이 끝난 후 당신은 두통을 호소할지도 모른다.

3. 오페라 부파부터 오페라 세리아까지

원래 어떤 일이든 시작이 힘든 법이다. 첫 오페라는 부파로 쉽게, 두 편 세 편 보다보면 흥미가 생겨서 오페라의 거장인 푸치니(G.Puccini), 베르디(G.Verdi)의 오페라들을 쉽게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어려운 오페라 세리아 분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오페라 애호가가가 되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4. 같은 오페라를 여러 번 보라.

같은 오페라라도 여러 번 보게 되면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보이면서 그 오페라가 점점 더 흥미로워 질 것이다.

5. 출연자의 이름을 기억하라.

위와 같은 맥락이다. 같은 오페라, 다른 연출가, 다른 성악가, 누구든 생각이 같지 않듯, 하물며 같은 오페라 연출가라 하더라도 그날의 공연은 다를 것이다. 그런 다른 점들을 알아보게 되면서 좋아하는 연출자나 좋아하는 성악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분의 팬이 되어 오페라 또한 더더욱 찾아다니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쯤 알려줬으니 오페라에 대한 불안감은 씻어버리고 이제 실전(공연장)에 뛰어들어보자!

1) 레치타티보(Recitativo) : 오페라 중 스토리 전개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여 표현함. 종류는 ① 레치타티보 세코(recitativo secco-베이스 악기만으로 반주) ② 레치타티보 스트로멘타토(recitativo stromentato-오케스트라로 반주) 등 두 가지로 구별된다.

북한현대판화

여명의 길잡이 - 함창연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7년 12월 한국현대판화의 50년을 조명하는 <한국현대판화 1958~2008전>이 열렸다. 이 전시에서 1950년대 한국현대판화의 도입부에 북한의 변월룡과 함창연의 작품이 같이 전시되면서 한국현대판화 50년에 북한작가가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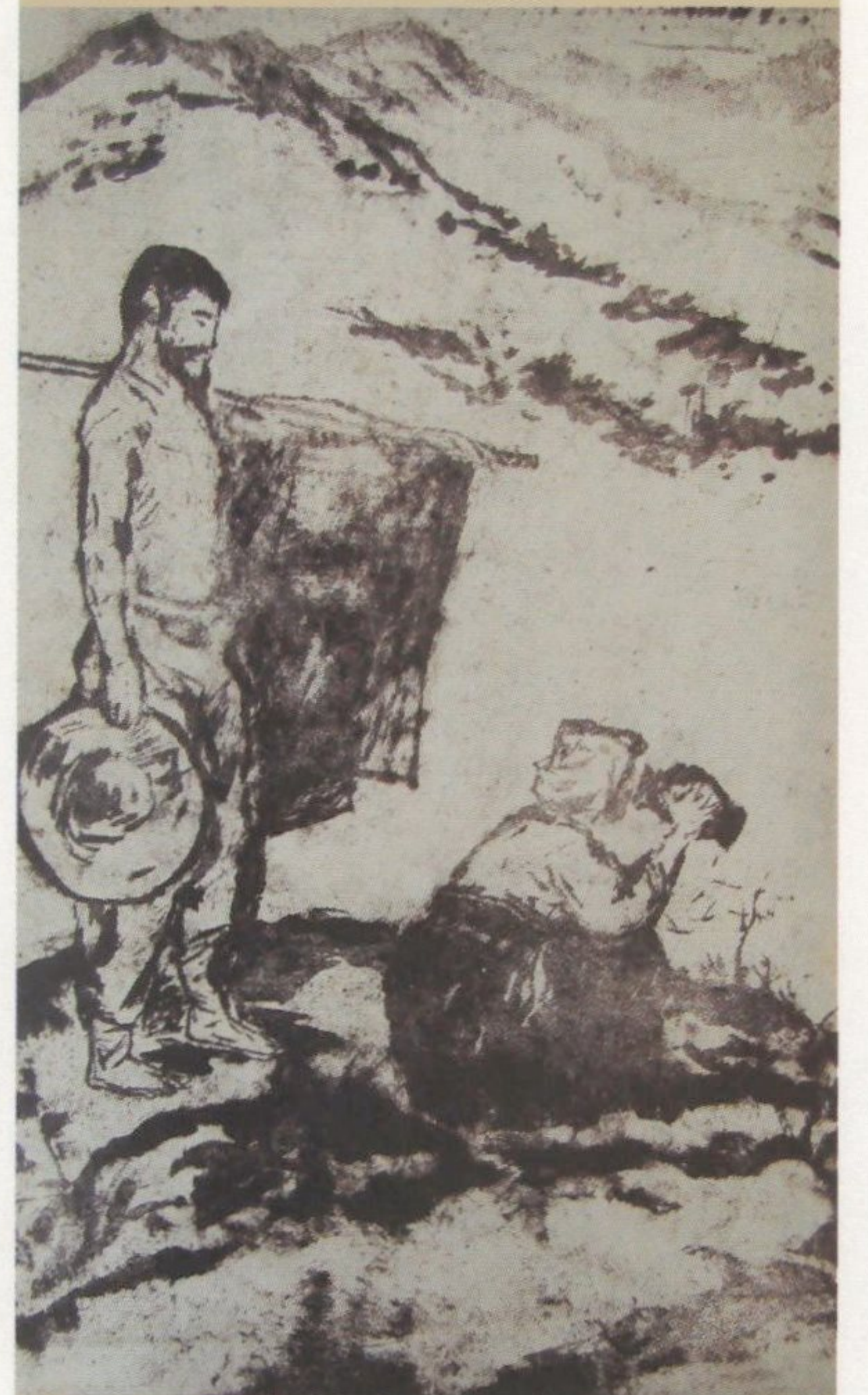
사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북한미술이 북한과의 경제·문화교류협력이 추진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었다. 교류가 어려웠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출처불명의 북한작품들이 모사되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우는 있었지만, 근간에는 대북사업차 많은 민간인들이 방북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통로로 북한작품이 수집되기도 하고, 인터넷화랑을 통해 작품이 유통되고 개인의 소장품 전시를 통해 실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났었다. 부산에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의 문화행사로 부산미술협회 주최 <아시아 정신전>이 개최되어 북한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다.

북한은 사회 통합을 위한 예술 장르로서 영화분야보다 미술을 우선시한다고 알려져 왔다. 북한의 대도시의 거리와 주요 건물에는 공공미술품 성격의 기념비, 기념탑 등의 조각과 벽화가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거대한 크기의 웅장한 미술품들이 선전용으로 제작되었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국책사업에 만수대 창작사 조각창작단이 참여하면서 더불어 미술가들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함창연 : 비스라강변에서, 1956, 에칭

함창연 : 화전민, 1957, 에칭



북한사회의 중요문예활동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중앙위원회와 시도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미술은 조선화, 유화, 조각, 공예, 무대미술, 산업미술, 평론 등의 분과로 세분화되어, 별도로 여러 곳에서 미술창작사를 운영한다. 작가들은 모두 <조선미술가동맹>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일정한 양의 작품을 제작하여 제출하거나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미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특히 북한의 판화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장르로 여겨져 왔다. 중국과 일본보다 늦게 출발한 남북한의 현대판화 50년은 해외 유학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현대판화가 일본과 미국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북한현대판화는 당연히 러시아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구성이 그 축이 되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판화가 중국 혁명기의 목판화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 무렵에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듯하고, 특히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 도록에 소개된 다색목판화들은 그 숙련도와 치밀성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현대판화 1958~2008전> 1950년대 도입부에는 1956년 최초로 목판화 개인전을 연 정규, 1957년 관전체제의 국전에 최초로 목판화로 출품한 최영림, 1950년대에 미술교육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옅싯인쇄기법을 원용하여 석판화를 제작한 이항성 등의 작품들과 함께 러시아 레핀 미대 교수를 지낸 변월용의 섬세하면서 깊이 있는 에칭기법의 풍경작품과 북한 공훈예술가 함창연의 목판화 인물 초상이 시선을 끌었다.

그중 함창연(咸彰然, 1933~1999)은 자강도 송원군 태생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미술대학에서 수학한 북한의 현대판화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배운성, 이정섭, 김건중 등 북한의 다른 공훈예술가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김영훈(56세 평양미술대학 학장, 판화과 주임교수)이 현재 북한판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화단은 단지 3인의 인민예술가, 김영훈, 정관철(1916~83), 정영만(67)을 배출하였는데, 이러한 김영훈의 위상으로 보아 그의 스승 함창연의 북한에서의 판화사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미술백과사전에 게재, 단원과 함께 한반도의 뛰어난 미술가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이다.

함창연은 1953년 폴란드 유학시절 '모스크바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입상했으며, '라이프치히 세계동판화콩쿠르'에서 서정적인 '밭갈이'로 금메달을, '비엔나국제미술전람회'에서는 일제 치하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화전민'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피카소와 함께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젊은 나이에 동양정신이 용해된 수묵화와 같은 작품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함창연은 1959년 귀국한 뒤 35년 동안 평양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80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함창연은 실크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판화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할 정도로 정통 유럽판화의 기법을 섭렵하였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기법과 표현, 모티브의 활용으로 단연 발군이었다. 1950년대 초기 유학시절에는 바르샤바의 거리와 다리풍경, 정물, 인물 등을 소재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인상주의, 표현주의 등의 다양한 사조를 보여 주었으며, 석판화와 에칭과 잉그레이빙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후에는 작품의 주제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함창연 : 로인상, 1955, 드라이포인트

함창연은 1953년 폴란드 유학시절 '모스크바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입상했으며, '라이프치히 세계동판화콩쿠르'에서 서정적인 '밭갈이'로 금메달을, '비엔나국제미술전람회'에서는 일제 치하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화전민'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피카소와 함께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젊은 나이에 동양정신이 용해된 수묵화와 같은 작품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함창연은 1959년 귀국한 뒤 35년 동안 평양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80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함창연은 실크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판화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할 정도로 정통 유럽판화의 기법을 섭렵하였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기법과 표현, 모티브의 활용으로 단연 발군이었다. 1950년대 초기 유학시절에는 바르샤바의 거리와 다리풍경, 정물, 인물 등을 소재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인상주의, 표현주의 등의 다양한 사조를 보여 주었으며, 석판화와 에칭과 잉그레이빙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후에는 작품의 주제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2008년 9월 맨해튼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북한의 다색 목판화 24점을 소개하는 <유토피아의 변두리>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열렸다. 체재 선전적 요소도 있었지만 북한주민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표현하여 관심을 모았다. 전시를 주최한 니컬러스 보너(영국인: 중국소재 북한관광회사 고려투어 운영)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분단된 시간을 생각하면 남·북한 간의 문화예술교류야말로 그간의 장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미술시장에서 신명나게 움직이는 중국미술처럼 북한판화도 해외수집가들이 열망하는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기를 아무쪼록 바란다.

까보 베르드(Cabo Verde) II

'맨발의 디바'

쎬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의 열풍은 우리나라에도 월드 뮤직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리듬의 보고(寶庫)로 불리며 세계 대중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준 바 있는 쿠바의 옛 영광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노장들의 성공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새로운 욕구를 자극했고, 그 뒤를 따라 비영어권 문화의 낯선 음악들이 국내에도 줄을 이어 소개되어 왔다. 그 중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멤버들의 음악과 함께 국내 음악팬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아프리카 뮤지션이 있었다. '맨발의 디바', '모르나(morna)의 여왕'으로 불리는 쎬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이다. 지난해에 소개했던 모르나라는 독특한 매력의 음악을 통해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인 까보 베르드를 알려온 그녀는 이제 월드 뮤직 애호가라면 누구나 손에 꼽을 만한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낙후된 삶을 살아가는 까보 베르드에서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다. 쎬자리아 에보라 역시 본격적인 가수의 길로 접어들기 이전에는, 그녀가 지닌 목소리처럼 힘들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항구 도시인 민델루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남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쓰라린 아픔을 겪었다. "다시는 한 지붕 아래 남자를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큰 상실감에 빠져 지내던 그녀는 까보 베르드 출신의 한 프로듀서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쎬자리아 에보라는 결코 듣기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는 아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오랜 시간을 보냈던 탓인지 자신이 겪어왔던 세월의 풍상만큼이나 깊은 주름살이 패인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를 닮은 모르나의 리듬을 배경으로 노래하는 그 목소리는 짙은 애상과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그녀의 연륜 있는 목소리는 까보 베르드 여인들이 짊어져야 했던 고단한 삶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기에 더욱 진솔한 감동을 전한다. 쎬

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는 영화 속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고란 브레고비치(Goran Bregovic)가 음악을 맡았던 에밀 쿠스트리차(Emir Kusturica)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 속의 'Ausencia'라는 곡이나,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노래한 'Besame Mucho'를 통해 쎬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를 먼저 만나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녀가 '맨발의 디바'로 불리는 이유는 맨발로 무대에서 노래하기도 하고, 민델루의 바닷가를 맨발로 산책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쎬자리아 에보라와 함께 모르나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다른 까보 베르드 출신 뮤지션들 역시 세계무대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까보 베르드 최고의 작곡가이자 매력적인 음색으로 노래하는 남성 가수 테오피루 샹트르(Teofilo Chantre)는 쎬자리아 에보라의 여러 노래들을 작곡해 준 인물이기도 하며, 국내 월드 뮤직 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좋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그의 대표곡 'Roda Vida(인생의 수레바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는 월드 뮤직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우(Bau)라는 뮤지션도 빼놓을 수 없다. 페드로 알모도바르(Pedro Almodovar) 감독의 영화 <그녀에게>의 마지막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세계적인 안무가인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무용 작품 '마주르카 포고(Masurca Fogo)' 뒤에 흐르던 'Raquel'이라는 음악의 주인공이다. 기타, 바이올린, 까바깡뉴 등의 연주로 모르나 특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바우 역시 세계적인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다.

쎬자리아 에보라는 그 이름 자체로 까보 베르드라는 나라를 대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앞서 소개한 테오피루 샹트르와 바우를 비롯한 몇몇 아티스트들은 '모르나'라는 음악이 지닌 매력과 함께 월드 뮤직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다. 이들의 음악 속에는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사람들의 영원한 화두인 바다와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팍팍한 삶의 이야기가 검푸른 바다처럼 짙은 감동으로 담겨 있다.

부산에 울려 퍼지는 얼후의 소리

부산소리연



단 두 가닥 줄로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얼후'는 한번이라도 그 선율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악기이다. 최근 이런 '얼후'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국 전통악기인지라 정작 얼후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곳은 전국을 통틀어도 손가락 꼽기가 힘들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얼후 강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얼후동호회 '부산소리연'은 얼후 매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같은 존재이다. 부산소리연은 매주 일요일 오후 용두산공원 내에 위치한 세계민속악기박물관에서 강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 2기 수강생을 받으면서 현재는 20대에서 50대까지 총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소리연은 인터넷카페 전국 얼후동호회인 '얼후랑' 부산지역 모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강습을 겸한 정기모임이 정착하게 된 데는 세계민속악기박물관 학예실장으로 있는 강호순 씨의 역할이 컸다. 강사 섭외와 강습장소 제공은 모두 그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세계 다양한 악기를 통해 그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의 취지도 살리고 또 얼후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간 소통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호순 씨는 앞으로도 하프 등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악기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소리연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사람은 바로 얼후 강습을 맡고 있는 연주자 박영진 씨이다. 박영진 씨는 중국 길림성 음악학교에서 얼후를 전공하고 길림 예술단원으로 150여회 중국 순회공연을 가져온 얼후연주자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지만 강습이 있는 일요일에는 빠지지 않고 부산을 찾고 있다.

"매주 내려오는게 힘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힘들게 서울까지 올라가 배우는 부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후 연주자로서는 당연한 의무인거 같다"는 박영진 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얼후'라는 악기가 대중화되지 못해 아쉽다.

부산소리연은 배움에 목말랐던 만큼 인근 김해, 양산 뿐 아니라 대구, 진주, 산청 등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오는 열혈회원들로, 언제나 열정과 활기가 넘쳐난다.

부산소리연의 최고 연장자인 오상환 회원(56세). 우연히 세계민속악기박물관에 들렀다가 부산소리연과 인연을 맺게된 그는 4월부터 얼후강습을 받고 있다. 당시 얼후라는 악기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그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얼후의 음색에 빠지면서 어느새 그의 가족들도 얼후매니아가 되어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회원 임정희 씨에게 얼후는 10년 짝사랑이다. 10여전 우연히 중국영화를 통해 얼후를 접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아주 생소한 악기라 배울 수가 없었다. 인터넷카페 공지를 통해 그렇게도 소원하던 얼후 강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는 매주 얼후와의 만남이 행복하기만 하다. 부산의 첫 얼후동호회로 회원들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후의 매력을 알고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소리연은 지난해 8월 용두산공원에서 열린 세계악기 여름페스티벌 무대에 강사인 박영진 씨와 함께 출연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올해도 용두산공원 전통민속한마당을 비롯해 5월 전국의 얼후동호회가 모두 모이는 전국모임에서 그동안 닦아온 연주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문의/세계민속악기박물관(245-5025)



과학꿈나무들의 꿈과 희망이 영그는 과학체험공간 LG사이언스홀 부산

다양한 주제의 최첨단 과학 전시물과 쉽고 재미있는 체험학습으로 과학꿈나무들의 꿈과 희망이 영그는 곳, 바로 부산,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과학요람 LG사이언스홀 부산이다.

지난 1998년 5월 LG청소년과학관으로 출발한 LG사이언스홀 부산은 개관 10주년이 되던 해인 지난해 5월 'LG사이언스홀 부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LG사이언스홀 부산은 LG그룹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미래를 향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의 LG사이언스홀에 이어 두 번째로 개관한 민간과학관이다.

지금까지 120만명의 관람객이 이 곳을 다녀갈 정도로 부산, 경남지역의 '과학명소'가 된 LG사이언스홀 부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사전예약제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첨단과학'을 충분한 설명과 흥미

로운 체험학습으로 관람객들에게 알기쉬우면서도 제대로 전달하자는 LG사이언스홀 부산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듯 내실있는 관람을 위해 15분 간격으로 30명씩 한 팀을 이루어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단체관람 접수만 받고 있지만 요즘같은 방학기간에는 특별히 개인 관람자를 우선시한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난 이른 시간에도 LG사이언스홀 부산에는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어린 아이들로 북적거린다.

LG사이언스홀 부산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바로 개인 ID카드를 발급받는 일. 개인 ID카드가 있어야만 각 테마별 전시관에 설치된 체험아이템을 자유롭게 작동시킬 수 있다. ID카드까지 발급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관 체험을 경험해보자.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만날 곳은 '미래에너지관'. 이 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있는 환경오염의 실태를 보여주고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미래도시의 내일을 보여준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경주와 대형볼 회전을 통해 생기는 바람, 그리고 손의 체온으로 생기는 물기 등 속의 기포발생 실험을 통해 태양광, 풍력, 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원리를 눈으로 직접 보며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다.

'생명과학1관'은 세포, 염색체, DNA에서부터 유전자 분석과 재조합까지 생명과학의 기초분야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전시관으로, 흥미로운 체험학습과 게임으로 어린이 관람객의 발길을 가장 사로잡는 곳이다. 특히 미래의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관람객의 얼굴을 촬영해 미래의 아들, 딸을 직접 확인해보는 '미래의 나의 아들, 딸의 얼굴은?' 코너와 관람객이 직접 CSI회원이 되어 DNA 증거물 분석을 통해 과학자를 납치한 범인을 직접 찾는 '범인을 찾아라' 코너에서는 참가한 관람객의 웃음과 탄성이 연신 터진다.

신약개발과 원격진료,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나노기술 등 생명과학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테마로 한 '생명과학2관'에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마이크로 오디세이'가 큰 인기이다. 암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암세포로 손상된 유전자를 제거해 암을 치유하는 과정을 시뮬레이터를 타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데,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입체적 움직임이 실제 움직이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어렵고 지루한 과학은 가라' 어려운 과학원리를 재미있는 실험과 연기로 보여주는 사이언스 드라마는 LG사이언스홀 부산이 8년전부터 운영해온 상설 공연프로그램이다. 사이언스 드라마는 어려운 과학상식을 배우들의 익살스런 대사와 동작으로 전달하면서 주 관람객인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이밖에도 LG사이언스홀 부산에는 사이버강아지 초롱이와 그림그리는 로봇 등 생활속의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신기술

관', 첨단 네트워크로 더 쉽고 빠르게 하나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관', 3D 입체영상으로 스틸과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영상관' 등 다양한 테마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전시관을 선보이기 위해 3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4월부터는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찾을 예정이다.

상설전시 외에도 LG사이언스홀 부산에서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마련하는 초등학생 가족과학체험 프로그램인 'Fun & Fun' 과학관을 매달 격주로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열기구 만들기', '미니증기선 만들기', '신화 속의 수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Fun & Fun' 과학관은 올해도 2째주, 4째주 토요일 시민들을 찾아간다.

■관람안내

- ARS(808-3600, 3662), 인터넷(www.lgscience.co.kr) 예약
- 개인예약 : 관람 희망일 2주전(ARS는 1주전)부터 관람전일까지 선착순 예약가능.
- 단체예약 : ARS와 인터넷 이용 관람안내 확인 후 예약담당자를 통해 예약확인.

※일요일, 국경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문의 : LG사이언스홀 부산

(808-3600, 3662, www.lgscience.co.kr)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음악회

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부산출신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 돌아보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프로그램

블로흐/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1919)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작품 28
라벨/짜간느(Rapsodie de Concert)
베르디/무덤에 가까이 오지마라
슈만/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조두남/새타령
벨리니/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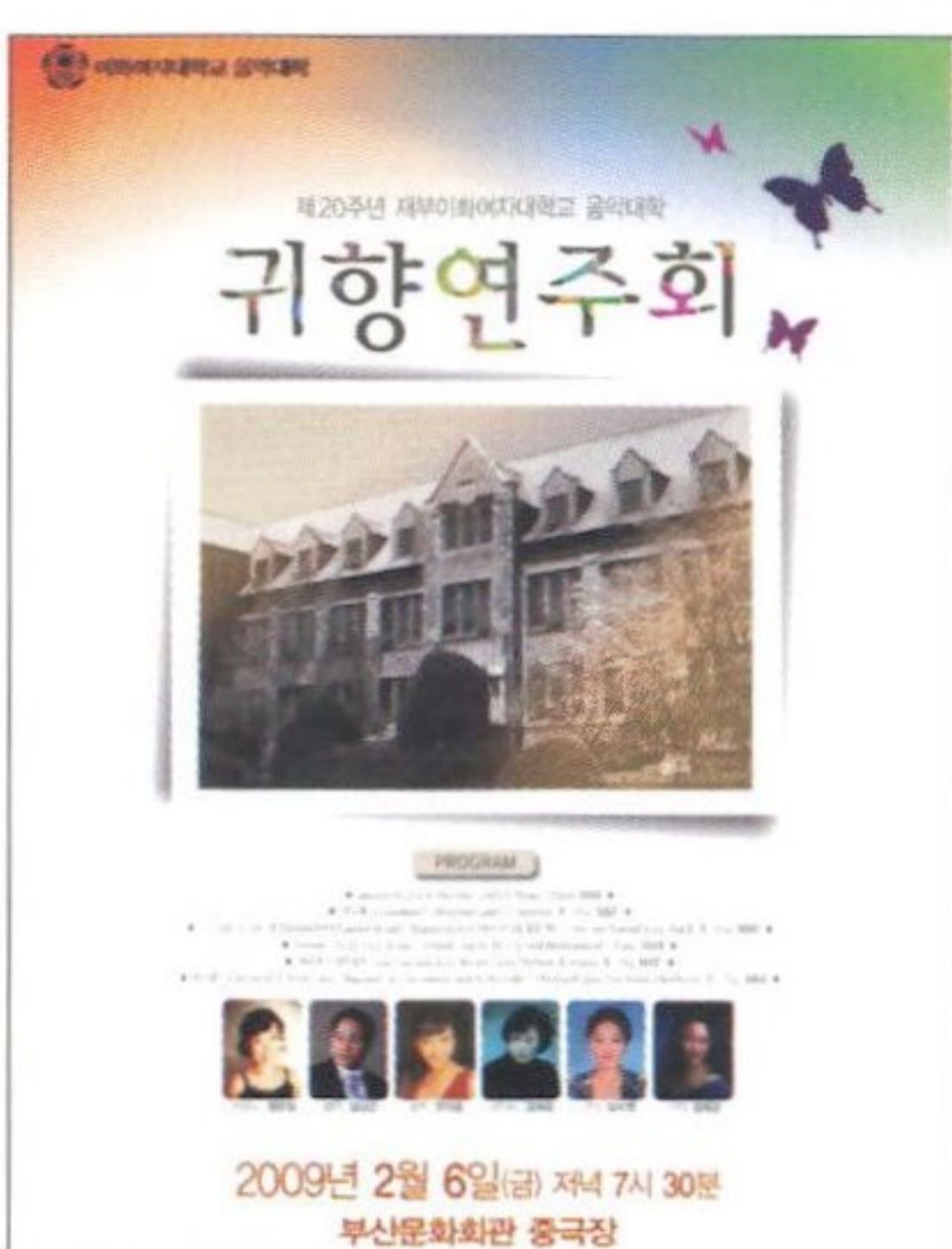
박소영(소프라노, 성악과 4년)
김민경(비올라, 기악과 3년), 김유리(바이올린, 기악과 3년)
김기만(바리톤, 성악과 1년), 김유빈(피아노, 기악과 1년)

관람료 초대

문 의 정미령(011-882-1895)

제 20주년 재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부산출신 음악도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매년 1회 귀향연주회를 열어온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부이화음대어머니회가 마련하는 20주년 기념 귀향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상곤을 비롯하여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음악계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이화여대 출신음악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쇼팽/스케르쑈 제 2번 Scherzo 제 2번 내림나단조 작품31
조두남/뱃노래
마이어베어/오페라 '아프리카의 여인' 중 '오 낙원이여'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내가 거리를 걸을 때'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제 2번 나장조, 제 5번 사단조
김동진/신아리랑 등수곡

출연

정은정(피아니스트, 부산예중고, 동부산 대학 출강), 김상곤(테너, 이화여대 교수), 양라운(소프라노, 부산예술중, 부산예술고 출강), 강혜경(피아니스트), 임수연(성악전공, 4학년), 김애경(소프라노, 이태리 활동중)

관람료 초대

문 의 강명순(010-9669-5449)

30_예술에의 초대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2006년에 창단된 이래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힘이 넘치는 웅혼한 사운드로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뉴프라임오케스트라는 울산 모닝콘서트를 시작으로, 대중상 영화제 개막식 연주, 부산바다축제를 위한 열린 음악회, 울산 UBC 방송국 10주년 기념음악회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로서의 음악적 완성도를 입증하였으며, 정기연주회와 함께 기업체와 학교, 기타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의 저변 확대와 음악교육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위해 펼쳐왔다.

특히 2007년 베트남 하노이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가진 '한국·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음악회'로 음악을 통한 해외 문화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베트남 하노이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가진 '한국·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음악회'로 음악을 통한 해외 문화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 5번 '황제'
말러/교향곡 제 4번 사장조
· 지휘/박성완
· 협연/소프라노 강혜정, 조민영

■ 관람료 VIP 30,000원 · 일반 15,000원

■ 문 의 뉴프라임 오케스트라(816-1104)



이동신

장일범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I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중극장 |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그 첫 무대로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벨칸토 오페라 작곡가인 도니체티, 벨리니, 로시니 오페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오페라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작곡가의 주요 오페라 속 대표적인 아리아와 오케스트라 곡을 들으며 고도의 기교와 맑은 음색을 자랑하는 벨칸토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

장일범은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생생클래식', CBS-TV On stage 'Forte' 프로그램 진행자로, 헤이스마리아 칼라스홀 음악감독, 고양 아람누리토코쇼 '장일범의 예술가와 만나고 싶다',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오후의 콘서트' 등의 무대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도니체티/'사랑의 묘약' 중 전주곡, '남몰래 흐르는 눈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광란의 아리아'
벨리니/'청교도' 중 '그대에게 사랑을',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험담은 미풍을 타고', '돈 바질리오' 등
· 지휘/이동신 · 해설/장일범
· 협연/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이연기, 베이스 함석헌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2009년 4회 공연 관람권 30,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박종화 김동욱

2009 제5회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 갈라 콘서트

대극장 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품격 높은 실내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09 부산국제음악제를 여는 오프닝 갈라 콘서트.

'더 없이 맑은 연주와 피아노에 대한 뛰어난 해석'으로 청중을 매혹시키는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화(서울대학교 교수)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양욱진, 뉴잉글랜드 음악원 바이올린 교수이자 인디애나 음대 지휘 교수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홍콩 필하모니 역사상 23세 최연소의 나이로 비올라 수석이 되면서 화제를 모은 비올리스트 홍웨이 황과 함께 하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헨델-하보센/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싸칼리아 (바이올린/김동욱, 첼로/양욱진)

모츠르트/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사단조 작품 71

(바이올린/제임스 버즈웰, 양고운, 피아노/서정원)

슈만/피아노 솔로 '빈 사유제' 작품 26 (피아노/필립 케윈)

브람스/피아노 5중주 바단조 작품 34

(피아노/박종화, 1st바이올린/김동욱, 2nd바이올린/제임스 버즈웰, 비올라/홍웨이 황, 첼로/양욱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로렌스 레셔 박혜선

2009 제5회 부산국제음악제 로렌스 레셔 & 박혜선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 연주회

중극장 2월 16일 월요일 오후 6:00

세계적인 첼리스트 로렌스 레셔와 피아니스트 박혜선이 들려주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 카사도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있는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셔는 지난해 70세 생일을 기념해 미국 보스턴과 뉴욕, 캐나다 캘거리 등에서 박혜선과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I

헨델/오라트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베토벤/첼로소나타 제1번 작품 5-1 바장조, 첼로소나타 제4번 작품 102-1 다장조, 첼로소나타 제5번 작품 102-2 라장조

프로그램 II

모차르트/오페라 '마적' 중 '연인인가 아내인가'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작품 66

베토벤/첼로소나타 제2번 작품 5-2 사단조

모차르트/오페라 '마적'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에게는'에 의한 7개의 변주곡

베토벤/첼로소나타 제3번 작품 69-3 가장조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멜로매니아 가족음악회 제 4회 바리톤 한성권 독창회

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4년 9월 창립된 남성 성악 솔리스트 모임 멜로매니아가 들려주는 바리톤 한성권 독창회.

멜로매니아 회원인 한성권은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늦은 나이에 성악공부를 시작하여 부산음악사랑회 회장, 필로스음악선교회 회장, 솔리싱어즈 리더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크고 작은 무대에 500여회 출연, 부드럽

고 정감어린 음색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

레온카발로 /오페라 'I Pagliacci' 중 '프롤로그'

슈만/두 사람의 척탄병

카르딜로 /무정한 마음

변훈/쥐

이수인/고향의 노래

· 특별출연/한효은(비올라)

· 우정출연/멜로매니아

· 피아노/곽윤희 (동아대 출강)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멜로매니아(011-9543-9378)

바다 그리고 구름 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6년 12월, 합창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바다 그리고 구름 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합창을 통해 단원들의 정서함양과 아울러 음악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이리랑, 풀각시를 만들며, 날리리 맘보, 도라지꽃, 아베마리아, 어머니 등 수곡

· 지휘/이창균 · 반주/서영희

관람료 초대

문의 김인순(017-549-7969)

2009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 탁영아 피아노 독주회

2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2009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피아니스트 탁영아 독주회.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탁영아는 텍사스에서 열린 San Antonio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입상과 함께 고전음악을 가장 뛰어난 연주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Best Performance of a Classical



Work' 특별상, 'International Corpus Christi Young Artists' 콩쿠르 1위 입상, 이탈리아 발세시아 국제 콩쿠르, 힐튼 헤드 국제 콩쿠르 남미주 리 국제 콩쿠르, 하이다 혈만즈 국제 콩쿠르, Fulbright International Competition, 독일 에틀링겐 국제 콩쿠르, 경남 국제콩쿠르 등에서 상위 입상했다.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 (New York Concert Review)라는 평을 받고 있는 탁영아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작품 50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제 2번 작품 2

쇼팽/환타지 폴로네이즈 작품 61

주디스 자이몽/마법사들(2003)

리스트/페트라르카 소네트 104

리스트/베르디의 리골레토 페러프레이즈

관람료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월 한낮의 유U; 콘서트 '크로스오버 바이러스'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지휘 박성완 가수 정훈희 테너 허동권 첼로 양욱진

클래식, 국악, 재즈,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유U; 콘서트 32번째 무대 '크로스오버 바이러스'.

박성완이 지휘하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드라마의 감동을 높여준 클래식 곡과 가수 정훈희가 들려주는 주옥 같은 명곡들과 풍부한 음색으로 행복을 전한다.

프로그램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경기병 서곡(F. V. 쥘페 곡), 윌리엄 텔 서곡 (G. 롯시니 곡), 넬라 판타지아(E. 모리네 곡), 파반느 (G. 포레 곡)

드라마 '겨울연가' /My Memory,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대가수 정훈희/꽃밭에서, 무인도, 사랑이 지나가면 등 수곡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특별출연/가수 정훈희, 테너 허동권, 첼로 양욱진(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구독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신수정

필립 케인

2009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멘델스존의 실내악 페스티벌 콘서트

대극장 2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19세기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 중 한사람인 멘델스존(1809년~1847년)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2009 부산국제음악제 페스티벌 콘서트.

2005년 서울음대 최초의 여성학장으로 취임한 피아니스트 신수정,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뛰어난 피아노 교수법으로 각광받는 필립 케인이 연주하는 듀오무대, 신수정, 마스코 우소다, 양욱진이 연주하는 피아노 3중주, 이 시대의 다재다능한 바이올리스트 제임스 버즈웰, 전 부천시향 악장 양고운, 부산시향 악장 김동욱, 서울시향 비올라 수석 홍웨이 황, 부산시향 비올라 수석 김가영 등이 들려주는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연주로 부산을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화합하는 화려한 실내악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모음곡 중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듀오' (피아노/필립 케인, 신수정)

멘델스존/피아노 3중주 제2번 작품 66 다단조(피아노/신수정, 바이올린/마스코 우소다, 첼로/양욱진)

멘델스존/현악 8중주 작품 20 내림마장조(바이올린/제임스 버즈웰, 양고운, 김동욱, 마스코 우소다, 비올라/홍웨이 황, 김가영, 첼로/양욱진, 민경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9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피아노의 거장 당 타이손 피아노 독주회

대극장 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2009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로 오랜만에 부산을 찾은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손 피아노 독주회.

1980년 아시안계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당 타이손은 쇼팽 콩쿠르 우승 후 미국 뉴욕의 링컨 센터, 런던의 바비칸 센터, 파리의 살레플레, 뮌헨, 비엔나, 호주, 일본 등 40여 개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쇼팽 콩쿠르를 비롯한 미국 클리블랜드,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일본의 하마마츠, 독일의 벡스타인 콩쿠르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한 당 타이손은 2007-2008시즌에는 차이나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몬트리올 주네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존하는 쇼팽 연주의 최고 해석자로 꼽히는 당 타이손은 현재 캐나다의 몬트리올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로그램

포레/2개의 녹턴 작품 33-1&2

라벨/모음곡 '겨울'

쇼팽/바카롤레 작품 60 올림 바장조

쇼팽/4개의 마주르카 작품 17, 4개의 마주르카 작품 33

쇼팽 /스케르조 제 2번 내림나단조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9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I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아티스트와 함께

대극장 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겨울 부산 최고의 실내악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음악회.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유리엘 세갈이 지휘하고 줄리어드 음대 교수 제롬 로웬탈과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마스코 유소다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독일 5개 도시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김경희, 정수임, 알토 박소연, 테너 양승엽, 테너 정종철, 베이스 하병욱 등이 솔리스트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서곡 작품 26

베토벤/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합창 환상곡' 작품 80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터키' 작품 219

멘델스존/교향곡 제 4번 가장조 '이탈리아' 작품 90

- 지휘/유리엘 세갈
- 바이올린/마스코 우소대(뉴잉글랜드음악원 교수)
- 피아노/제롬 로웬탈(줄리어드 음대 교수)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피아니스트 서혜경 독주회 Night and Dream

대극장 2월 21일 토요일 오후 7:30

'클래식 붐'을 일으킨 인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3회 연속 카메오로 출연, 뛰어난 연기력과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부산연주회.

놀라운 힘과 역동적인 연주로 카네기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서혜경은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음악적 전성기에 찾아온 근육 파열과 암이라는 두 차례의 큰 시련을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극복했다.

서혜경은 2008년 1월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재기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으로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적인 느낌의 '밤과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는 낭만주의와 인상주의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팽/연습곡 작품 25 '에올리언 하프', 빗방울 전주곡

슈만/피아노 모음곡 '어린이의 정경' 작품 15 중 '이상한 나라' '숨바꼭질' '꿈' '목마의 기사' 드뷔시/피아노 모음곡 '어린이의 세계' 중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 '콜리워의 케이크워크'

오펜바흐/호프만의 뱃노래

빌라 로보스/ '아기의 가족' 중 '어릿광대' 등 수곡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인아트(632-6904)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2월 22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지휘 최봉은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교육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

동아대학교 김용문교수, 김해 필하모닉 최봉은 지휘자가 지휘한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협주곡 마단조

비제/카르멘모음곡 제 1번

요한 슈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모차르트/심포니 제 39번 등 수곡

· 지휘/김용문, 최봉은

관람료 무료

문 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희망을 향한 노래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권남희

김판수

류재환

유미영

2008년 '사랑'을 테마로 다양한 무대를 열어준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2009년 첫 무대 '희망을 향한 노래'.

음악을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희망을 꿈꾸며 음악으로 1년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기존의 정통 미사가 아닌 Rock풍의 흥겨운 M.가드너의 미사곡 'Little Rock Mass', 새로운 탄생과 봄의 기운이 넘치는 한국가곡, 퍼플러한 대중가요로 '희망을 향한 노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합창 하나, 작은 록 미사/Kyrie, Sanctus, Gloria

합창 둘, 독주악기와 함께 하는 합창/내 눈을 들어 살피니(바이올린), 아무 말도 없었네(첼로), 두 개의 히브리 노래(플룻, 오보에), 장엄한 말들(플룻)

합창 셋, 합창심포니/신세계 교향곡(드보르작), 호른 협주곡(모차르트)

합창 넷, 봄을 향한 노래/강이 풀리면(오동일), 봄의 신앙(슈베르트), 봄이 오면(김준범 편곡)

합창 다섯, 희망을 향한 노래/사노라면, 상록수 등 수곡

· 지휘, 해설/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편곡/최석태, 문지은

· 협연/권남희(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김판수(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류재환(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유미영(플룻,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하늘극단 어린이음악교육 뮤지컬 사운드오브 뮤직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7:00
2월 28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중극장



전문 뮤지컬 배우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아역 배우들이 함께 펼치는 어린이 교육뮤지컬 '사운드오브 뮤직'.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스토리와 리듬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을 즐기는 방법과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출연

이가윤, 박종원, 윤광희, 이은미, 조은정, 조철훈, 나유림, 장세영, 황세영
관람료 현매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예매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문화예술기획 하늘극단(1588-3828)

Ensemble di Mare 제 2회 정기연주회

3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악주자 13명이 포근하고 잔잔한 바다의 화음과 같은 실내

악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2008년 결성한 '양상블 디 마레' 제 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비발디/협주곡 '알라 루스티카' 사장조
드볼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 II. Tempo di Valse
홀스트/성 파울루스 모음곡
그리그/Chamber concerto for piano and string orchestra(편곡)
· 리더/이은옥(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협연/장형준(서울대학교 교수)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로크 콘서트 Mysterioso

대극장 2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2006년 미국 클래식 최고 권위 있는 상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어워즈를 수상한 한국계 비올리

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부산연주회.

리처드 용재 오닐은 현재 링컨 센터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II의 유일한 비올라 주자로, 체임버 그룹 카메라타 파시피카의 수석 비올리스트, 세종 솔로이스츠의 수석 비올리스트 겸 솔리스트로, 새로운 클래식 스타 그룹으로 떠오르는 앙상블 디토의 리더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12월 발매된 4집 Mysterioso 음반 발매를 기념하여 레코딩에 함께했던 바로크 음악과 바로크 악기 전문가들인 알테무지크 쾰른(AMK)의 멤버들과 함께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텔레만/비올라협주곡 사장조(Viola & AMK)
비탈리/사콘느 사단조(Viola & AMK)
파헬렐/캐논(Viola & AMK)
코렐리/바이올린소나타 제 12번(Viola & AMK)
헨델/파사칼리아(Viola & Cello) 등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대극장 3월 6일~ 8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한국 뮤지컬의 절대적인 신화로 꼽히는 '지킬 앤 하이드' 부산공연.

2004년 초연부터 매 공연마다 1일 티켓 판매량 신기록, 전회 기립 박수 등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지킬 앤 하이드'가 2009년 류정한, 홍광호, 김선영과 함께 새로운 신화를 준비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두 개의 본성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한 드라마에 지킬, 엠마, 루시의 로맨스가 더해져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극명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표현하여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주며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들이 작품과 적절하게 앙상블을 이루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준다.

· 프로듀서/신춘수

· 연출, 안무/데이비트 스완

· 음악감독/원미솔

출연

류정한, 홍광호, 김선영, 김수정,
김소현, 임혜영, 김봉환, 류창우 외

· 캐스팅 일정

날짜	시간	지킬	루시
3/6	8시	홍광호	김선영
3/7	3시	홍광호	김선영
3/7	7시30분	류정한	김수정
3/8	2시	홍광호	김수정
3/8	6시30분	류정한	김선영

■ 관람료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70,000원 ·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시민회관

가족 그림자극 오페라 마술피리

1월 29일(목)-2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대극장

빛과 그림자가 만난 천재작곡가 모차르트의 환상 오페라 그림자극 '마술피리'와 생상스의 음악극 '동물의 사육제'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손 그림자로 표현한 그림자극 '동물의 사육제'가 함께 상연된다.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SM기획(818-1772)

조영남 독창회

2월 3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관람료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문의 케이에스(1588-0766)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2월 7일-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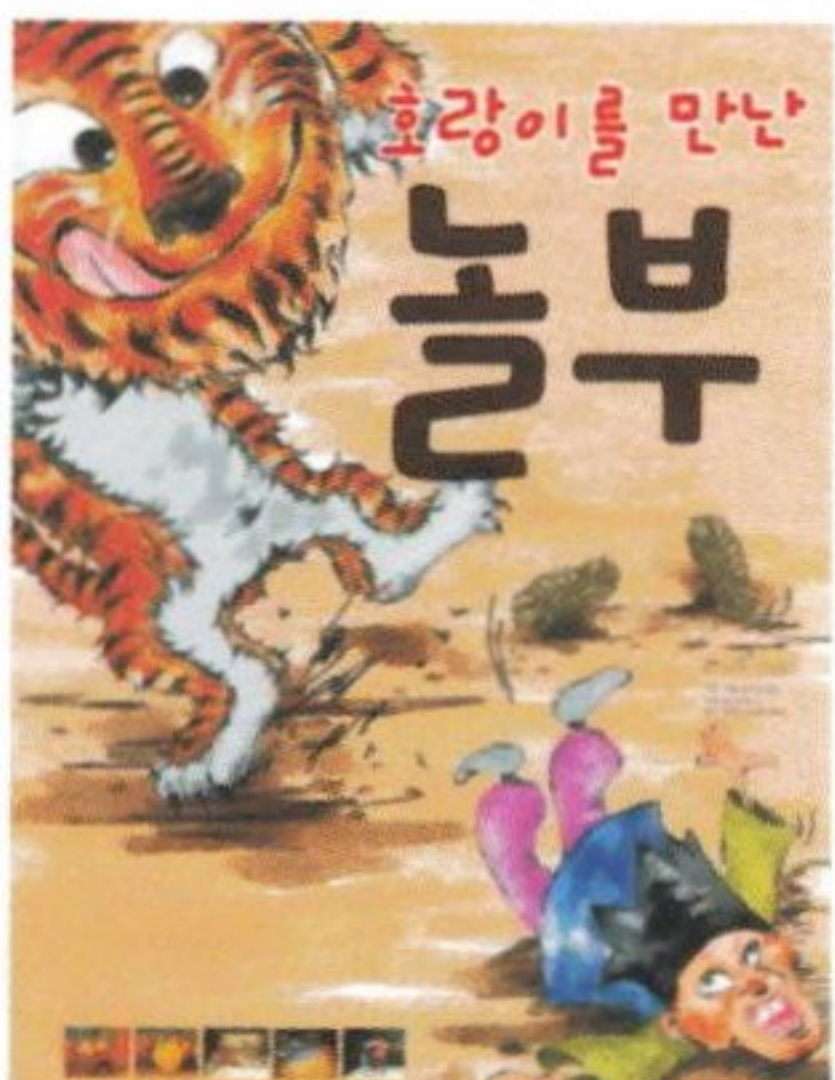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전문연기자들의 연기와 완성도 높은 무대미술, 조명과 특수효과 등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관람료 균일 20,000원(인터넷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문화예술기획 세종(050-2134-2580)

이덕인의 국악체험뮤지컬 호랑이를 만난 놀부

2월 7일-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공연장



우리의 전래동화에 판소리, 민요, 탈춤을 접목시켜 어린이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제작된 국악체험뮤지컬.

· 연출/이덕인

관람료 균일 12,000원
(기획사 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 JOY클럽 뮤직앙상블 내한공연

2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15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1993년 지적장애를 지닌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지금까지 500여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일본 전 열도를 감동시켰던 일본 JOY클럽 뮤직앙상블 내한공연.

프로그램

파헬렐/캐논변주곡

히사이시 조/ '천공의 섬 라퓨타' 중 '너를 태우고' 콘도 도시노리/우정 등 수곡

관람료 일반 30,000원 · 중고생 20,000원
(장애우 50% 할인)

문의 시민회관(630-5200)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2월 14일(토)-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3: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대극장

전국 관객 662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로맨틱코미디 영화부문 최고 흥행신기록을 수립했던 동명의 영화

를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시킨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최근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배우 송창의와 2008년 더뮤지컬어워즈 인기스타상을 수상한 가수 바다 등 최고의 캐스팅으로, 스크린에서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 출연/송창의, 바다, 윤공주, 김성기, 한성식, 유정민 외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금요일, 토-일요일 낮공연은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금정문화회관



송지선

박은미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4일 소프라노 송지선 & 박은미 조인트 리사이틀

이화여대 음대 및 동대학원과 미국 템플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영미가곡연구회, Te Deum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송지선과 미국 템플음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Pi Kappa Lambda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한 소프라노 박은미 조인트 리사이틀.

프로그램

사티/너를 위해

오펜바흐/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벚노래'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국제수준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상반기 대관접수중

첨단 시스템의 녹음 음반제작

제 7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안내 홈페이지 참조

음악영재교육 대안학교 사론국제음악원

찬양사역사 음악목사 목사 교육배출기관

사론찬양신학교 봄학기 학생모집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 녹음홀

GloVil Art Hall

607-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3호선 미남역 1번 출구에서 5분)
http://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Tel. 051-505-5995/051-504-5994

· 피아노/김고은

■11일 주니어 오카리나 앙상블 축제

부산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오카리나합주단과 교사 오카리나합주단이 함께하는 오카리나 앙상블 축제.

· 출연/동신초등학교(3학년 3반), 문희원(동신초 3년), 사남초등학교, 이세민(백운초 3년), 백운초등학교, 반안초등학교(관학악부), 부산여자중학교, 모동중학교, 이주현(동성초 6년), 교사 오카리나합주단 바운스앙상블

■18일 플룻 김예나 & 이인애 조인트 리사이틀

부산예고 3학년에 재학중인 김예나, 이인애 조인트 리사이틀.

프로그램

모차르트/협주곡 사장조 KV. 313
 뱀/화려한 폴로네이즈 라장조 작품 16 등 수곡
 · 찬조출연/신가영(부산예술중 2년)
 · 피아노/이영송

■25일 플룻 이효권 & 피아노 전채린 조인트 리사이틀

부산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이효권과 전채린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마단조 BWV. 1034
 리스트/라 캄파넬라 등 수곡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새우리음악회 7주년 350회 대공연

2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새우리병원에서 매주 목요일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마련하는 새우리음악회 7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포크기타와 재즈, 트로트, 성가 등 다양한 연주곡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관람료 무료

문 의 새우리병원(516-9999)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플루트 앙상블과 함께하는 영화음악의 밤

2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소공연장

플루트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리더스플루트앙상블은 2004년 창단연주회 이후 6차례 정기연주회와 결식아동, 심장병어린이돕기 사랑의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명곡과 영화 OST를 플루트 앙상블로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 의 서민규(010-8633-4792)

백경애 피아노 독주회

2월 9일 월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부산예고 3년 실기전공 우수상을 수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예정인 백경애 피아노 독주회.

백경애는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1등,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최 피아노부 대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팽/에튀드 작품 10 제 1번
 슈만/나비 작품 2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백경애(010-9786-6822)

민규, 민지, 태영의 첫나들이

2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서민규, 바리톤 이태영이 마련하는 3인 음악회.

소프라노 김민지는 고태국콩쿠르, 대구 전국성악경연대회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양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테너 서민규는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솔리스트, 솔오페라단 '춘향아 춘향아' 주역으로, 바리톤 이태영은 KSME콩쿠르 전체대상, 인제대학교 콩쿠르 성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오페라 '마탄의 사수'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 및 뮤지컬 넘버,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 의 이태영(01-4424-2749)



김원 피아노 리사이틀

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불꽃같은 열정과 탁월한 테크닉'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김원 리사이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

을 펼치고 있는 김원은 그동안 마리아칼라스 국제콩쿠르 1위, 윌리엄 카펠 국제콩쿠르 3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20세기 작품 최우수연주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라흐마니노프/회화적 연습곡 작품 39 중 1번, 2번, 5번, 9번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의 세 악장 등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예성기획(582-2026)

동물뮤지컬 정글로 간 백설공주

2월 13일 금요일 오후 5:00, 7:00, 14일-1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공연장

백설공주를 해치려는 못된 마녀와 사냥꾼에 맞서는 동물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어린이 뮤지컬.

원숭이와 왕관앵무새, 양과 기니아피 등 실제 동물들이 출연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초록공간(1566-9786)



부산아가페합창단 제 31회 정기연주회

2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노래를 통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아가페합창단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현대성가 및 고전성가, 한국성가, 성탄곡 등을 들려준다.

· 지휘/김주태

· 피아노/박선화, 김고은 · 오르간/김혜정

· 특별출연/소프라노 서경숙, 테너 곽성섭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주태(010-9913-2807)

옥샘하모니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2월 17일 화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동래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옥샘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 3번 1악장

피아졸라/리베라 탱고

동요모음 메들리 등 수곡

· 지휘/박진홍 · 협연/오승민(바이올린)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진홍(017-563-7966)

정혜은, 양은정 조인트 리사이틀

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한양대학교 피아노과 2년에 재학중인 정혜은과 중앙대학교 관현악과 2년에 재학중인 양은정이 함께하는 조인트 리사이틀.

프로그램

쇼팽/폴로네이즈-환타지 작품 61

라흐마니노프/코렐리 테마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브루흐/스코틀랜드 환타지 작품 46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양은정(010-4122-0295)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겨울 음악페스티벌

2월 20일(금), 23일(월), 26일(목) 오후 7:30

소공연장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겨울 음악페스티벌.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연구소 소장인 피아니스트 석경래의 연주진행과 아나운서 박현정의 해설로 60여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널리 알려진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5번 '운명', 제 6번 '전원', 제 9번 '합창'

파헬렐/캐논 변주곡

노영심/학교가는 길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선연(010-8508-6846)

해운대 문화회관

어린이뮤지컬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12:30

대공연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 성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작된 교육 뮤지컬.

관람료 균일 10,000원(단체 5,000원)

문 의 모아이벤트(010-9699-4546)



라 폰테가라 암스테르담 한국 연주회

2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대공연장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사스키아 콜렌, 페터 홀츠락, 한 톨로 구성된 라 폰테가라 암스테르담 한국연주회.

라 폰테가라 암스테르담은 지난 2000년 암스테르담에서 마지막 공연을 가졌으나 청중들의 요청에 의해 올해 한해 독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한국, 타이완 등에서 고별 해외 순회연주회를 갖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음악의 주옥같은 레퍼토리에서부터 현대작품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50,000원(청소년 및 1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 의 리코디아(02-2692-7945)

어린이 국악뮤지컬 **딩실딩실 개비개비**

2월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오후 2:00, 4:00 대공연장



설화 속 이야기를 판소리와 탈춤, 민요 등 국악과 꼭두각시 놀음, 씨름, 제기차기 등 민속 전래놀이와 접목시킨 어린이를 위한 국악체험놀이극.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러운 봉달이와 친구 도깨비를 통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관람료 균일 12,000원(기획사 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KBS 부산홀

어린이 뮤지컬 **마법천자문**

1월 27일-2월 1일 화-일요일 오후 1:00, 4:00

어린이 한자교육 바람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학습만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마법천자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 의 AN시티(1644-4484)

파워레인저 와일드스피릿-부산

2월 7일 토요일 오후 2:00, 4:00, 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m에 달하는 거대로봇과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되었던 의상과 소품, 배우들의 화려한 액션이 볼거리를 더 하는 어린이 뮤지컬 '파워레인저 와일드스피릿'.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문 의 (주)시저스컨텐츠그룹(02-541-4150)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알리바이터윈행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불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우

한국발명특허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 처

CGV10% 적립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오충근

강동석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The Classic 부산사랑 희망콘서트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경제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부산사랑 희망콘서트.

바이올린의 음유시인 강동석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미혜, 열정의 바리톤 김동규가 함께한다.

프로그램

주폐/경기병서곡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스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

드보르작/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강동석(바이올린), 박미혜(소프라노), 김동규(바리톤)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30,000원

문의 KNN(1577-7600 www.knn.co.kr)

2009 이승철 발렌타인 콘서트

2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8:00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문의 올리버엔터테인먼트(1588-4430)



베토벤 바이러스 in Live

2월 19일 목요일 오후 8:00

'강마에 신드롬'을 낳으며 클래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었던 TV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통해 친숙

해진 클래식 명곡으로 구성된 드라마 콘서트.

드라마의 예술감독을 맡아 오케스트라를 총괄 지휘했던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서희태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촬영장 에피소드와 영상이 어우러져 드라마의 감동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주폐/경기병 서곡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오펜바흐/자클린느의 눈물

베토벤/교향곡 제 9번 '합창' 중 '환희의 송가' 등 수곡

· 지휘 및 해설/서희태

· 연주/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 협연/부산시립합창단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B석 33,000원

문의 라이브아트(1544-9857)

부산의 소극장

70분간의 연애 2nd -One Night Stand

1월 9일(금)-2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1/26일 공연없음, 1/25일 오후
6:00, 1/27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로맨틱 코메디의 대표작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한 연극 '70분간의 연애' 두 번째 이야기.

5년을 사귄 애인에게 버림받은 서른 한살 주인공 윤희와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대학후배 명식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담론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 작, 연출/성기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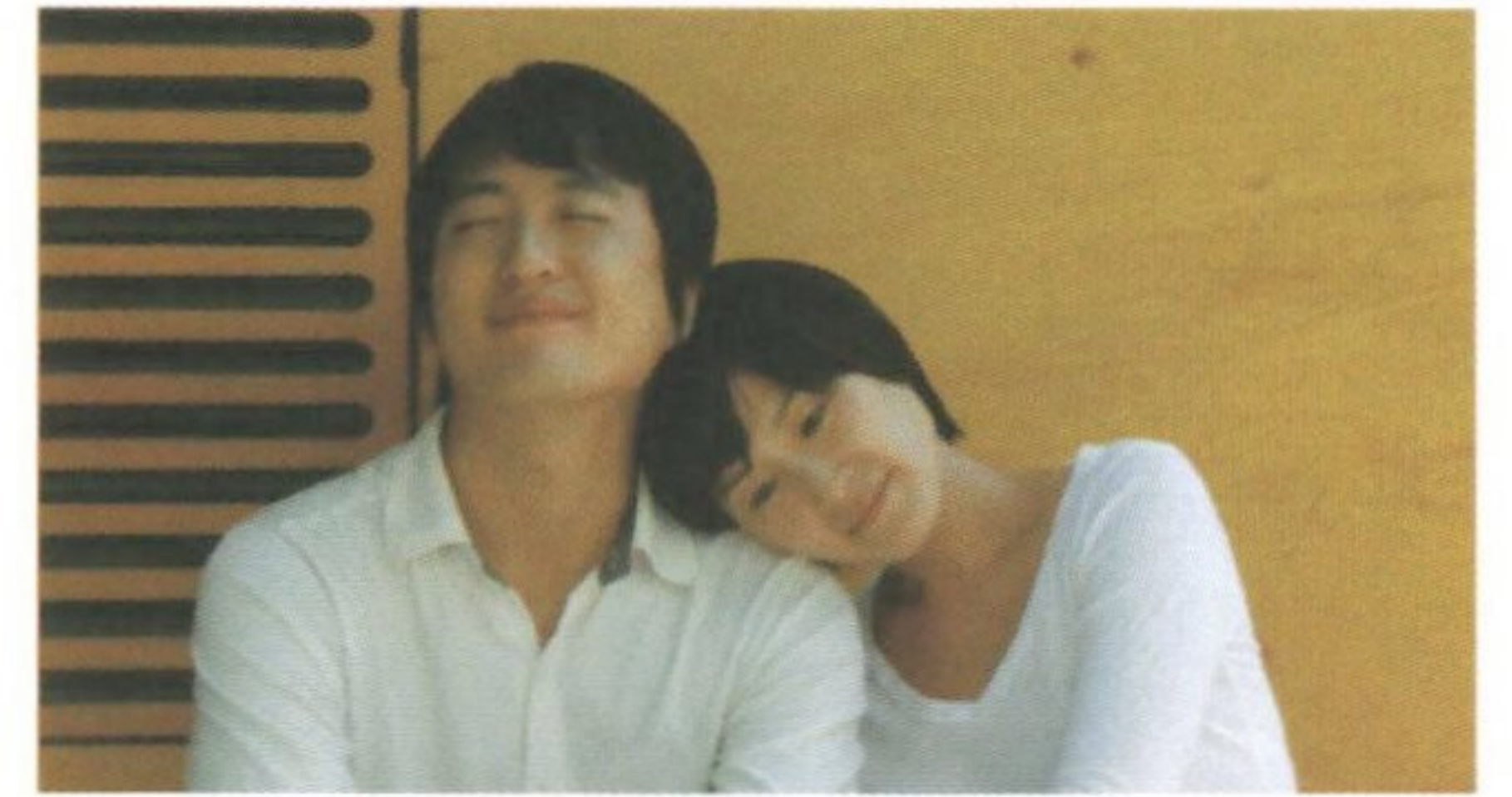
· 출연/이화룡, 레지나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너만 사랑할 수 있어

1월 14일(수)-2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까칠한 성격의 남자주인공과 천방지축 여주인공의 달콤살벌한 로맨틱 코메디극 '너만 사랑할 수 있어'.

· 작/원영진 · 연출/김수희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라디오, 잠시 길을 잃다(시즌 2)

1월 30일(금)-3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공간소극장

생기발랄 사랑스러운 DJ '하소연', 재치만점 과시 DJ '하지만'과 함께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리얼 라디오 토크쇼.

전문 뮤지션, 방송인, 예술가 등 진짜 게스트들의 깜짝 등장과 추억의 명곡에서부터 최신 유행곡까지 주옥같은 음악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박민지, 김세환 · 연출/김세환

· 출연/이정비, 김준영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프렌치 무드 French Mood

1월 30일(금)-3월 1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세계 영화팬들을 매료시킨 프랑스 영화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는 기획전.

1940년에 만들어진 장 그레미옹 감독의 '폭풍우'에서부터 필립 가렐 감독의 2005년작 '평범한 연인들'에 이르기까지 총 18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관람료 일반 5,000원 · 회원 3,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All together choir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3일 3인음악회 '우정의 노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안선희, 소미래, 배제선이 들려주는 '우정의 노래'.

· 피아노/김아영 · 해설/장진규

■10일 앙상블 '사운드' 초청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과 방효준, 비올리스트 최영식, 첼리스트 정학선, 피아니스트 정지선으로 구성된 앙상블 '사운드'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헨델-할버슨/파사칼리아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423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등

■17일 소프라노 고예정 독창회 '그대 있음에...'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 1등,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소프라노 고예정 독창회.

· 피아노/이승윤 · 해설/장진규

■24일 All together choir 초청연주회

가톨릭 선교와 복음화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All together choir 초청연주회.

· 해설/장진규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www.bccenter.or.kr)



극단 새벽 창단 25주년 레퍼토리 기획공연 1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2월 5일(목)-3월 29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실천무대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은 극단 새벽이 극단의 대

표적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마련하는 첫 번째 무대.

일란성 쌍둥이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를 선보인다.

· 작, 연출/이성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창작 가족뮤지컬 색깔나라 꼬마천사

2월 7일(토)-15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 오후 2:00 공간소극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색깔나라 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미술교육극 '색깔나라 꼬마천사'.

· 작, 연출/김만중

· 출연/이지혜, 김성현, 방두환, 서민정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서톤 사람들

2월 13일(금)-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독신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교사 유하이의 홀로 사는 집에 초보 줌도둑 장덕배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코믹

사회 풍자극.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변지호, 홍선주, 김지현, 염순식, 한상민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아센 제 22회 정기공연

러브러브 베베-시즌 2 상상하는 여자

2월 13일(금)-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매주 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깜찍하고 당돌한 그녀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네 사람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코미디극 '상상하는 여자'.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황자미, 성완용, 김희지, 호민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연극 광수생각

2월 14일(토)-3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1997년 일간지에 연재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오음악원

오페라과 신설

- ▶ 작품: 푸치니 오페라 '리보엔'
- ▶ 모집일시: 수시모집
- ▶ 모집대상: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은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 ▶ 수업내용: 오페라 악보연습, 연기
-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부산콘서바토리오음악원
BUSAN CONSERVATORY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EL.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오아트홀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대연분원
T. 628-9110(경성대전철역 2번 출구, 푸르지오 상가 2층)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오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을 이끌어낸 카툰 '광수생각'을 무대화한 작품.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광수의 일상을 통해 가족과
 연인간의 사랑과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출연/김동현, 강지후, 오미란, 김태신, 변세영, 이송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정명화 제임스 버즈웰

2005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회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2월 17일 화요일 오후 6:30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2009 부산국제음악
 제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비
 올리스트 홍웨이 황 등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무대이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악 8중주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외
 관람료 균일 150,000원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14회 글로벌아트홀 행복음악회

2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련하는 사랑의
 자선음악회. 바이올린, 색소폰, 합창, 독창 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관람료 무료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프라미스랜드 목요일무대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프라미스랜드

대청동에 위치한 프라미스랜드에서 매월 마지막주 목
 요일 마련하는 문화예술한마당.

2월에는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
 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초청
 무대로 마련된다.

관람료 무료
 문 의 포스커뮤니케이션(010-8422-5544)

행사

기차로 떠나는 몸속 대 탐험전

2008년 12월 11일(목)-2009년 2월 15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3,000원
 문 의 (주)함께하는친구들(747-5118,
 www.body2008.com)

신나는 뽀로로 놀이동산 시즌2

2008년 12월 13일(토)-2009년 2월 15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5:00
 관람료 일반 10,000원 · 어린이 12,000원
 문 의 (주)오콘(02-3218-9204,
 www.pororoplay.co.kr)

키즈랜드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3월 1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균일 11,000원
 문 의 (주)씨앤제이엔터테인먼트(740-8800,
 www.2009BEXCO.com)

2008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008년 12월 25일(목)-2009년 2월 15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5:00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주)KNN(850-9442)

제 80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2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음악찬조/강나루 외 현악4중주
 · 사회/이동호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예강(019-516-1867)

전시

동삼동패총전시관 2008년 특별사진전 한강의 대홍수가 깨운 암사동 유적

2008년 9월 9일(화)-2009년 3월 1일(일)
 동삼동패총전시관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암사동유적(사적 제 267호)의 역사와 유적,
 출토유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사진전.

관람료 무료
 문 의 동삼동패총전시관(403-1193)



레스토랑 모짜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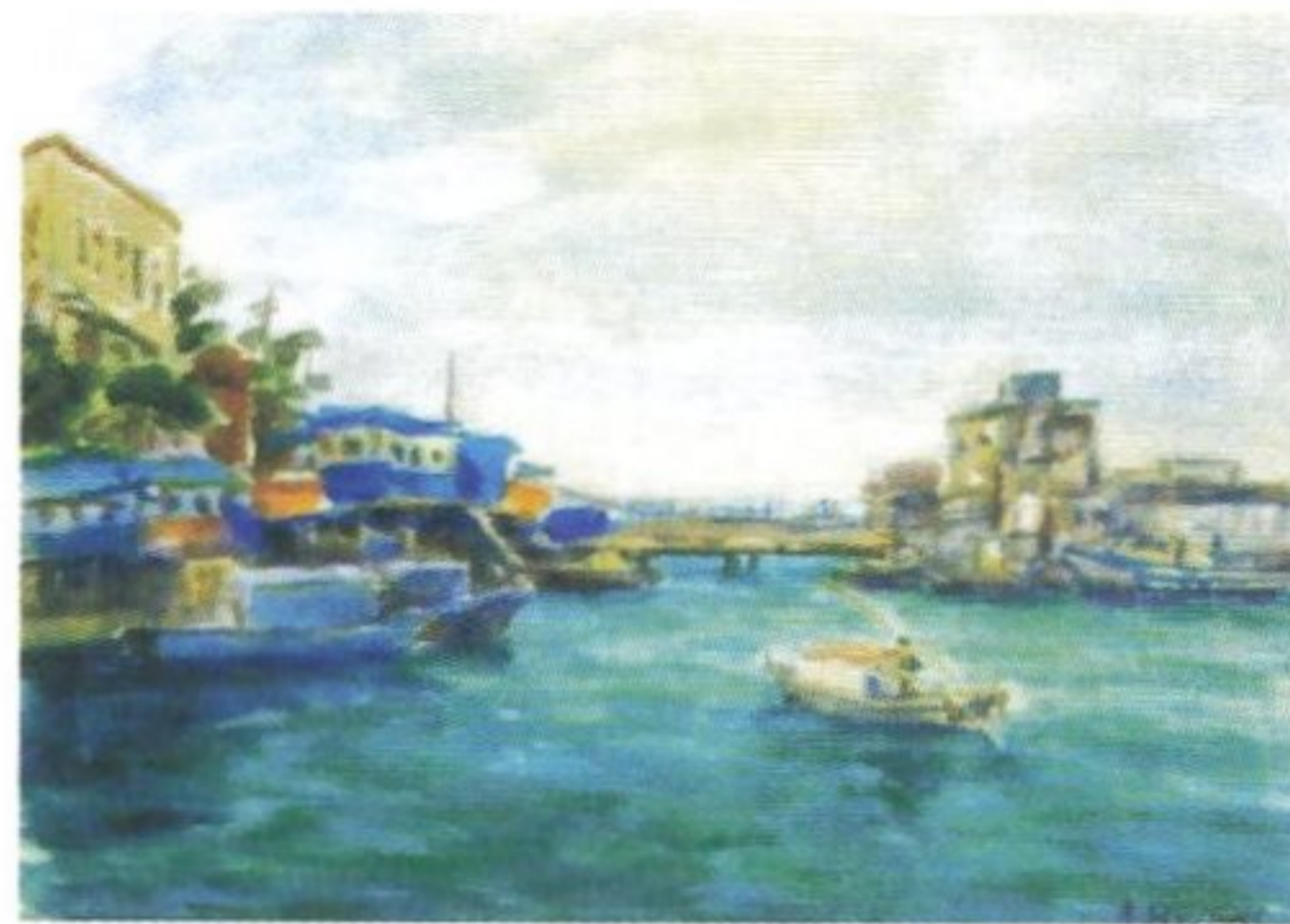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부산-인천 도시박물관 공동기획특별전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 기행

2008년 11월 25일(화)~2008년 3월 1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황규응 작
'송도'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 '풍경'展

2008년 12월 12일(금)~2009년 2월 22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부산의 지형적 특색을 잘 표현하는 작품들과 부산근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 그리고 우리나라 산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 전시하는 소장품 기획전.
관람료 무료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부산의 발견 2008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2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1980, 90년대를 젊은 작가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허리세대인 중견작가들의 현재 고민과 모습을 탐색하는 기획전.
박재현, 심점환, 왕경애, 하용석 등 4인 작가의 작품 23점이 전시된다.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6시(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월요일 휴관)
관람료 일반 700원 · 청소년 300원
초등학생 이하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rt.busan.go.kr)

하정웅 기증작품전:손아유의 세계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2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일본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진 점과 선과 색의 세계를 일군 재일교포 작가 손아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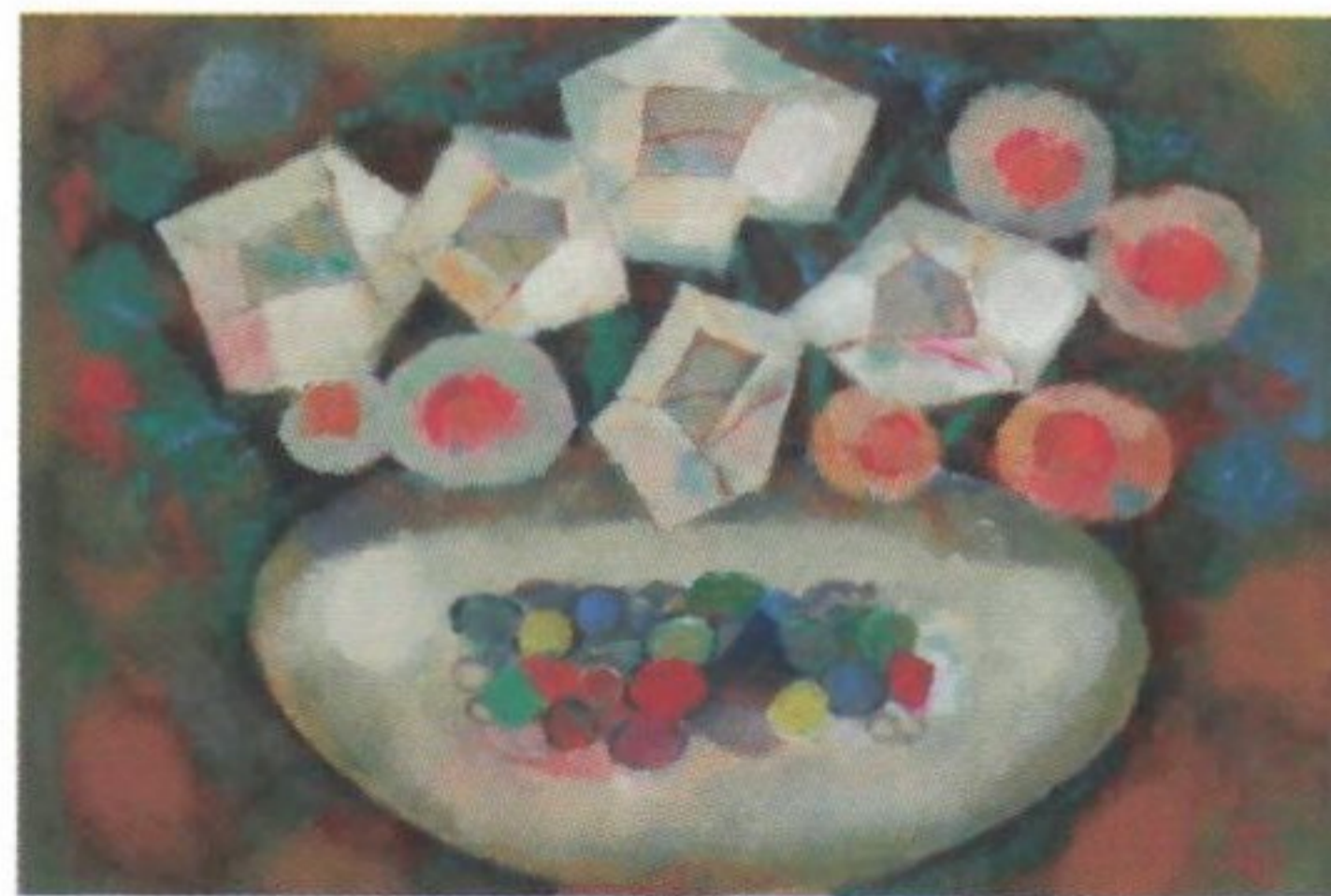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는 재일교포 콜렉터 하정웅이 기증한 손아유의 작품 78점이 전시된다.
관람료 일반 700원 · 청소년 300원
초등학생 이하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rt.busan.go.kr)

New Year, New Move 展

1월 6일(금)~2월 28일(토) 갤러리 이듬
· 참여작가/심준섭, 이이남, 손봉채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갤러리 이듬(743-0059)

러시아 현대미술 블라디보스토크의 작가들

1월 15일(목)~2월 1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부산시의 자매도시이자 2012년 APEC 개최 예정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현대미술작가 21명의 회화 및 판화, 입체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관람료 일반 700원 · 청소년 300원
초등학생 이하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rt.busan.go.kr)



타워갤러리 소장품전

1월 16일(금)~2월 21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박현선 개인전

1월 30일(금)~2월 5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사진전 '시종의 경계에서 2009'

2월 4일(수)~2월 10일(화)
해운대문화회관 제 1전시실
문의 사진집단 일우(017-870-9441)

이영애 개인전

2월 6일(금)~2월 12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송금석 개인전

2월 13일(금)~2월 19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박정숙 개인전

2월 20일(금)~2월 26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제 9회 타워현대여성작가전

2월 23일(월)~3월 14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전경애 섬유전

2월 27일(금)~3월 4일(수)
해운대문화회관 제 2전시실
문의 전경애(010-2565-8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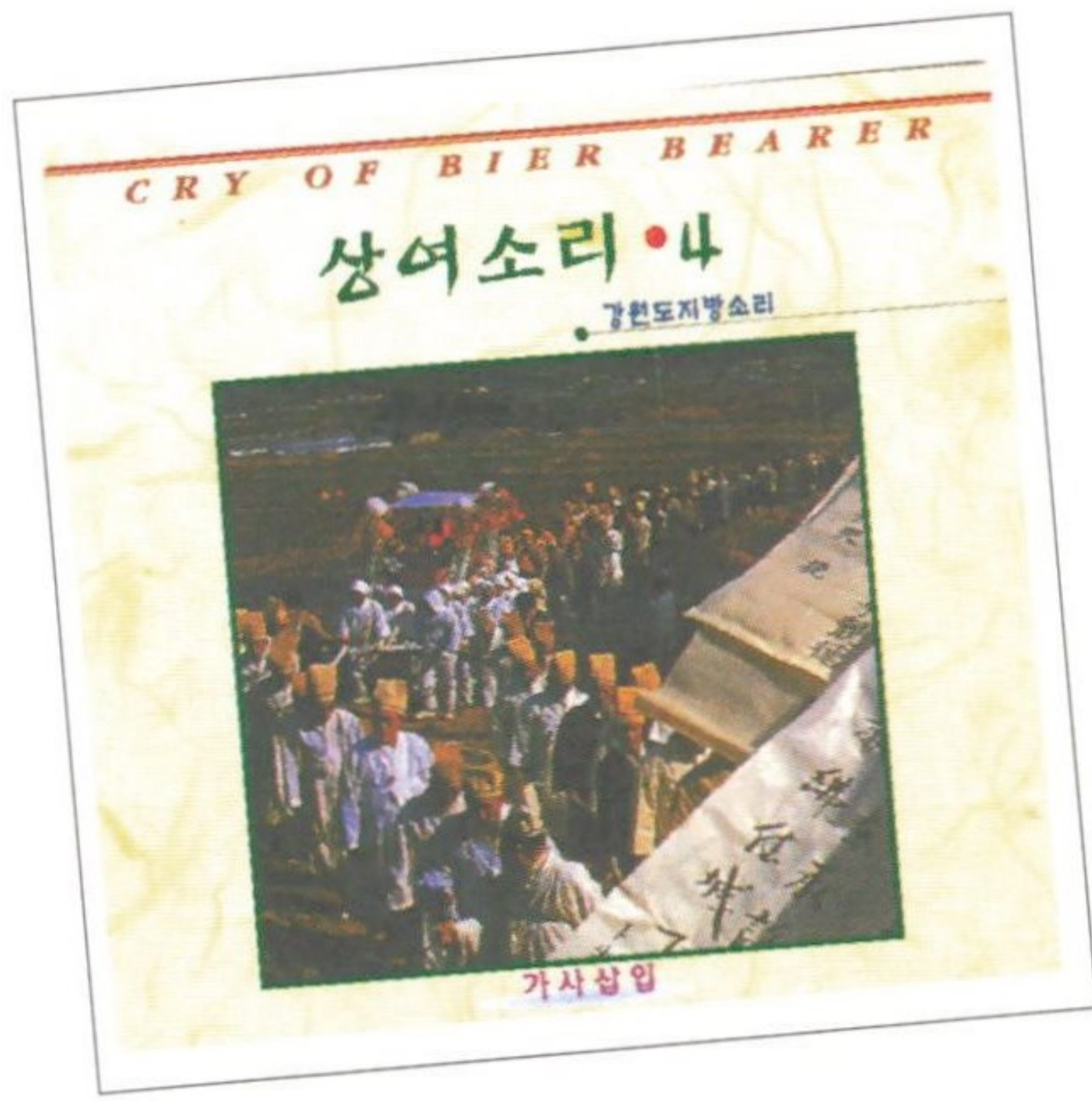
www.wendl-lung.co.kr

Wendl & Lung

1주:벤들·롱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롱 피아노





강원도지방소리 상여소리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나 가을 햇살에 풍성하게 빛나는 들녘을 바라볼 때 등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때면 '대지는 나에게 몸을 주었고, 삶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하더니,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좋다면 죽음도 역시 좋은 것이다' 라는 장자의 한 구절이 생각나면서 듣게 되는 음악이 있다.

상여소리는 우리의 진혼곡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여소리는 서양의 레퀴엠처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 레퀴엠이 음악적 기교로 죽음을 은유하고 있다면 상여소리는 숨김없이 죽음 자체를 노래하기 때문에 상여소리를 생의 허무나 절망을 노래하는 청승맞은 소리, 생각하기조차 싫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상여소리'에서 강한 긍정의 에너지를 느낀다. 이것은 간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침묵하면서 편안하게 따르는 생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에너지이다.

아-아-아-아-어화 넘자 어화 넘어
우리인생 늙어지면 오던 친구도 없어지니
나무라도 고목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오고
물이라도 단수가 되면 놀던 고기도 아니 오고
꽃이라도 낙화되면 놀던 나비도 아니 논다
우리인생 늙어지면 어느 친구가 날 찾을꼬...

상여소리 중의 가사이다. 그대로 보면 삶은 그야말로 절망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것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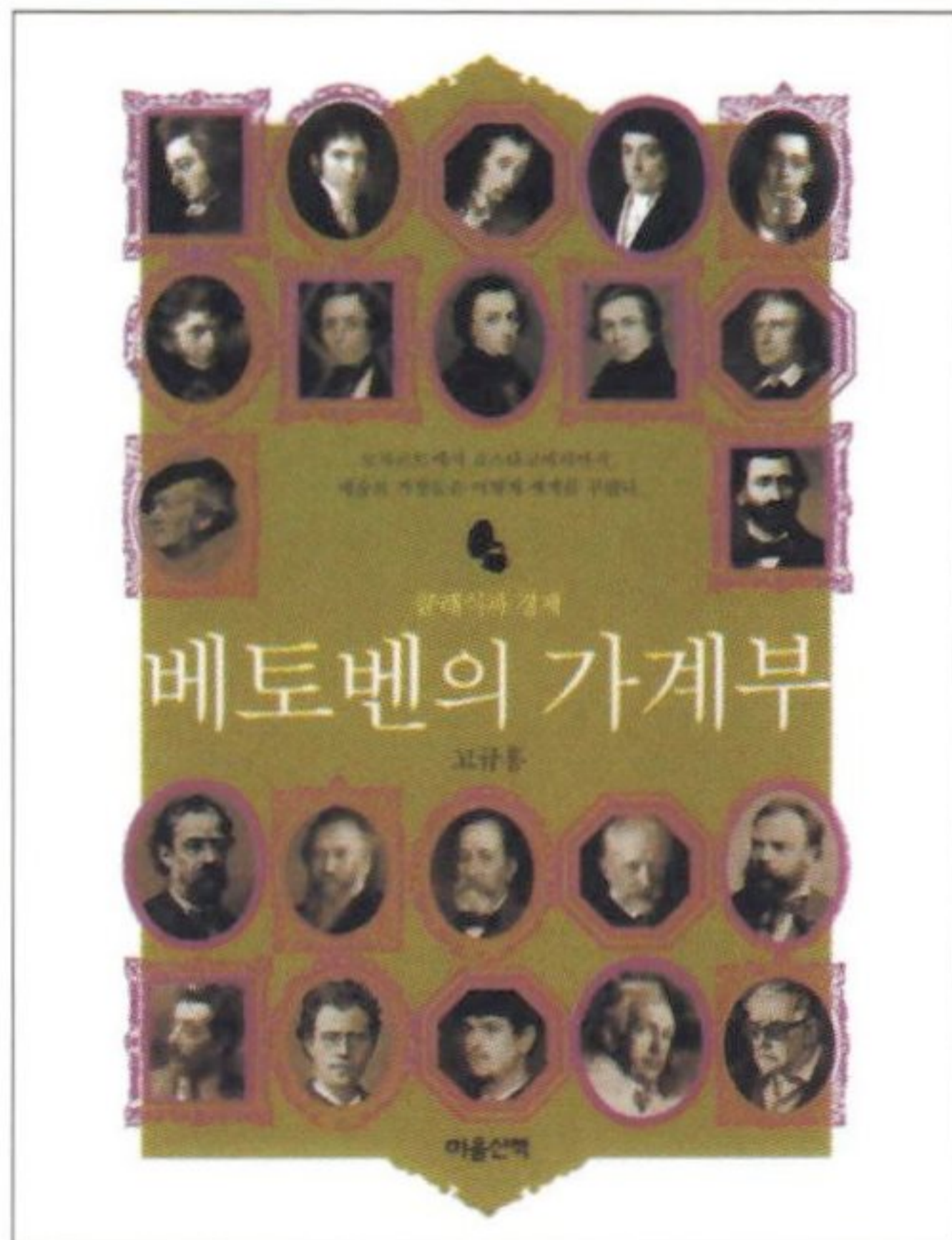
상여소리는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지방민요의 토리(음악적 사투리)로 불리워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지방의 상여소리는 경토리로 불리우고, 강원도와 경상도의 상여소리는 메나리토리, 전라도의 상여소리는 육자백이토리로 불리워진다. 상여소리도 민요와 같이 앞소리하는 사람이 메기면 뒷소리하는 사람들로 받는데 앞소리는 다양한 선율과 가사로 변화주어 음악적으로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상여소리'를 담은 음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상기획에서 제작한 '상여소리'가 감상하기에 좋다. 이 음반은 1994년에 새샘음반에서 카세트테입으로 제작한 것을 1998년에 명상기획/크라운음반에서 CD로 재발매한 것으로 충청도지방, 경상도지방, 전라도지방, 강원도지방의 상여소리를 담은 네 개의 시리즈로 되어있다.

'상여소리 1~4'는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한국음반 전시회 중 2006년 '생과 사를 다룬 한국전통음악 음반 자료'를 주제로한 전시회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상여소리 1~4'는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메나리토리의 구성지고 유려한 가락과 경쾌한 달구소리가 실린 4집 강원도지방소리를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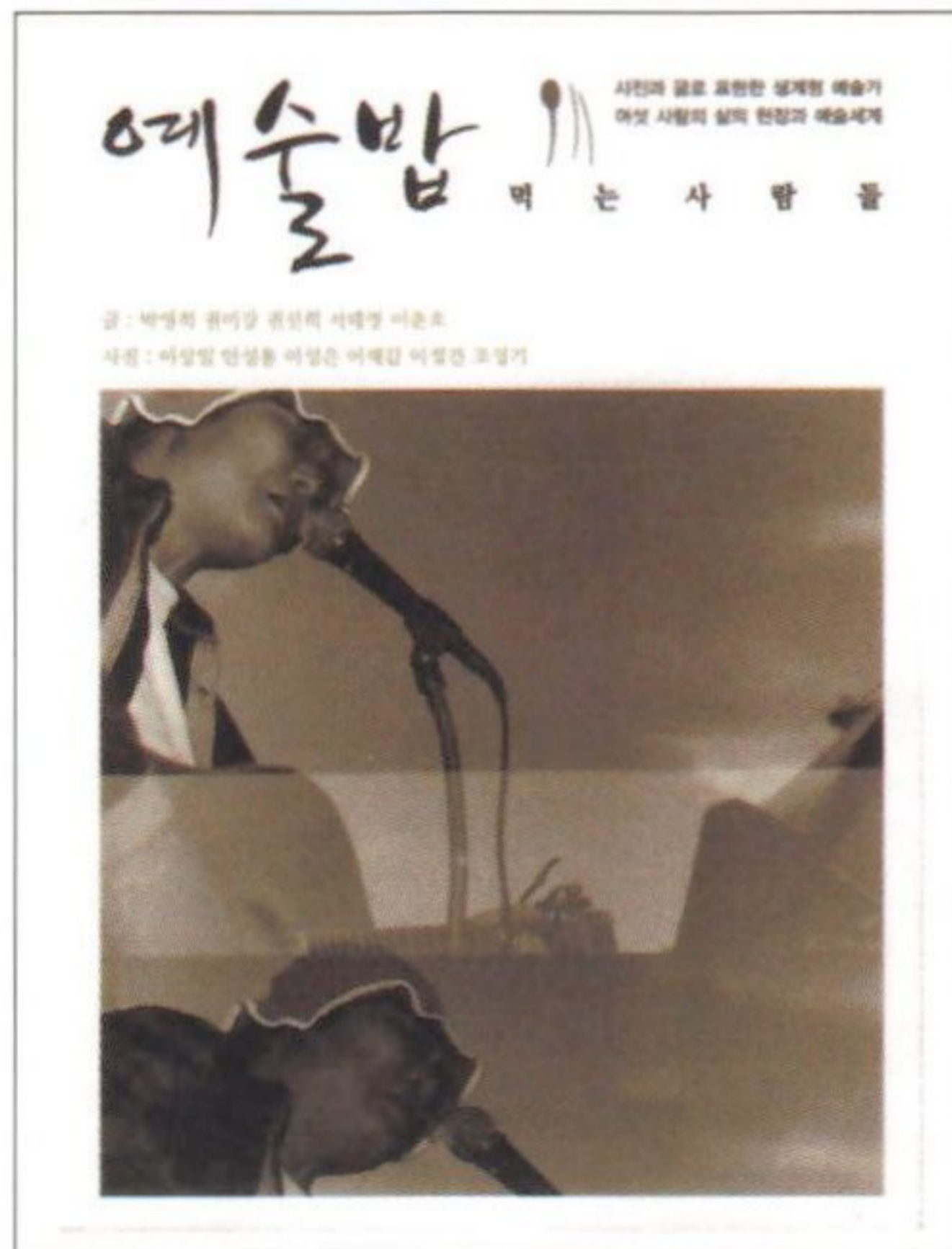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만물이 생동하는 소리와 함께 '상여소리'를 들으며 산과 산을 이어 빨래를 널 수 있다는 강원도 산 골짜기 사이를 드라이브해 보는 것은 어떨까?



베토벤의 가계부

• 고규홍 지음 • 마음산책
• 259p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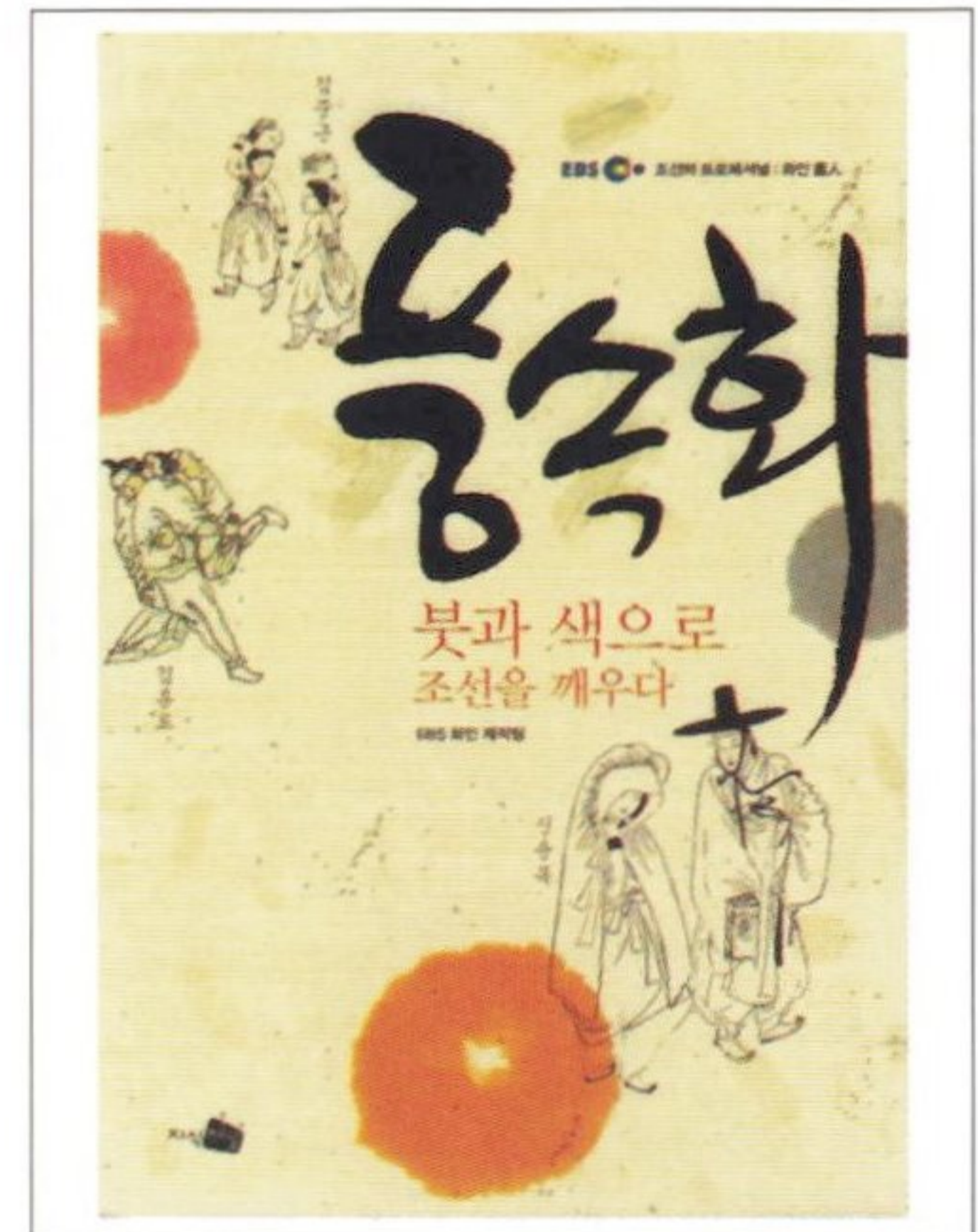
“형이 선택한 직업은 원래 생활을 곤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의 궁핍은 형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책임도 형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생 요한. “너의 돈은 필요 없다. 너의 설교도 필요 없다.” -두뇌 소유자 형 루트비히. 이 냉정한 대화는 베토벤과 동생이 주고받은 편지의 한 대목이다. 궁핍이 극에 달했던 베토벤이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동생에게 원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도 엄연히 경제 문제를 비켜갈 수 없는 생활인임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다른 음악가들도 마찬가지. 모차르트는 평생 빚더미에 시달렸으며, 피아노 한 대 살 수 없던 처지의 슈베르트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팬 카페라 할 수 있는 ‘슈베르티아덴’(슈베르트의 음악을 사랑한 친구들의 모임)에 기대 근근이 먹고살았다. 또 오로지 오페라 티켓 구입만 생각한 쇼팽은 실속 못 차린 출판계약을 거둬한 ‘음악사 최고의 돈맹’ 이고, 아버지가 파리 코뮌 전사였던 빨갱이 집안의 자손 드뷔시는 빈곤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렸다.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가난한 집안 자식들이었고, 음악을 선택한 뒤에는 더욱 가난해졌다.



예술밥 먹는 사람들

• 박영희 외 지음 • 눈빛
• 168p • 10,000원

예술은 겉으로 보기에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해당 예술가로서는 피와 땀이 스민 일과 작업의 소산이다. 이 책은 많은 예술가들 중에서 여섯 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피와 땀의 현장을 보여준다. 세계 무대를 제패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춤을 추는 비보이 전경배, 부산역 노숙자들의 친구인 거리가수 이호준, 팔손을 넘긴 풍물패 상쇠 강순연, 농민시인 이증기, 조형예술가 최정미, 각설이 김상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미 고수라고 불려도 될 예술가들이지만, ‘예술’과 ‘생활’의 경계를 넘나들며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 어쩌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예술인지 선을 긋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생계형 예술가’들의 삶을 읽다보면, 우리의 삶 어느 곳인가 예술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것도 같다. 고급스러운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만나는, 일상생활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자리한 듯한 그 행위와 결과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생활에서 예술이 멀고 높은 곳으로 가버리는 순간,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을게다.



풍속화-붓과 색으로 조선을 깨우다

• EBS 화인 제작팀 • 지식채널
• 240p • 12,000원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등 조선 후기 세 풍속화가를 집중 조명한 책. EBS 다큐멘터리 ‘조선의 프로 페셔널: 화인(畫人)’의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세 화가의 독특한 이력과 그들만의 개성강한 미술 기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광호 PD는 기록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근대를 살다 간 세 풍속화가의 자취를 찾아가는 여정, 격동기를 붓과 색으로 살다간 그들에 대한 헌사, 그들이 일찍 깨닫고 이야기하던 우리의 근대에 대한 회상을 이 책에 담았다. 궁중 최고의 화가였으면서도 일반 서민들의 풍속에 관심을 가진 김홍도, 성리학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에로티시즘을 발산한 신윤복, 세계 11개국에 그림이 퍼져 나갔으나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조선 개항기의 화가 김준근. 이들 세 화가의 작품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그들이 조선 후기 근대라는 시대를 어떻게 뜨겁게 살았는지, 교과서나 그림 분석에 머물렀던 여타 미술 교양서가 말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한다. 시대의 변화를 끌어안고 화폭에 담아낸 그들의 그림과 시각 속에서 조선에서 싹트던 근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립예술단 2009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풍성

- 복지관 순회 공연, 부산시청 로비 콘서트 등 -



부산시립무용단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한달 동안 부산지역 복지관을 찾아가 공연하는 '복지관 순회공연' 과 시청 로비 콘서트를 개최한다.

2005년부터 펼쳐진 복지관 순회공연은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 문화회관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에 우리 춤의 신명을 선사 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2월 3일 부산시립무용단의 영

진종합복지관 공연을 시작으로 화정종합사회복지관, 학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등 6개소에서 공연을 펼친다.

매주 수요일 12:30에 열리는 시청 로비 콘서트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한다.

■ 복지관 순회공연

- 2월 3일(화) 오전 11:00 부산시립무용단 '영진종합사회복지관'
- 2월 4일(수) 오후 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월 6일(금) 오전 10:00 부산시립무용단 '학장종합사회복지관'
- 2월 9일(월) 오전 10:00 부산시립무용단 '기장군 노인복지관'
- 2월 10일(화) 오후 3:00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 2월 13일(금) 오후 2:00 부산시립무용단 '해운대구종합복지관'

부산시청 2월 로비콘서트

- 2월 11일(수) 오후 12:30 부산시립합창단
- 2월 25일(수) 오후 12: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인분장실 연주자를 위한 연습용 피아노 구비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1월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대극장 개인분장실에 연습용 업라이트 피아노를 구입, 설치했다.

이번 피아노 구입으로 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대극장 분장실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공연을 앞둔 연주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연습시간과 최적의 공간을 조성, 연주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입한 피아노는 Yamaha Upright Piano U1 PE(153cm×61cm×121cm)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양산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을 보러 가는길은 멀지만 그래도 공연을 보고나면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객원지휘자인 서현석 선생님의 지휘로 펼쳐진 이번 신년음악회는 수석지휘자 아니시모프와는 또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니시모프의 지휘에서는 웅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서현석 선생님의 지휘는 꼼꼼하고 안정된 느낌이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지휘자에 따라 달라지는 오케스트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정지원(양산시 중부동)

한낮의 유(U)콘서트!

매달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는 음악회인데, 이번엔 중학생 큰딸과 열 살 짜리 작은딸이 객석의 특별 게스트로 함께 했다. 공연 분위기가 가족 같은 느낌이다. 오케스트라의 라데츠키 행진곡에 객석은 박수로 리듬을 맞추며 한껏 신년음악회 기분을 고조하였고, 올해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하하하 똥'으로 이겨보자며 한순간 시름을 떨쳐내기도 했다. 연주곡들이 흐르는 가운데 스크린에서는 줄곧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선물해 관객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소띠 해! 착하디 착한 소의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직한 소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열심히 전진합시다!

-최형화 (금정구 장전2동)

부산시립무용단 '2009 우리춤 산책'

아이들과 함께한 우리춤산책! 우리춤 중에 삼고무 공연처럼 역동적인 북가락이 있는지, 그리고 태평무처럼 발과 디딤과 손짓이 저렇게 현란하고 절제감이 있는지 공연을 보면서야 알게 되었네요. 마지막 설장고춤은 어깨를 절로 들썩이면서 어느새 한 시간이라는 공연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아이들도 너무나 신나하는 모습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숙(남구 용호4동)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내 생애 가장 감동적이었던 프랑스 오리지널팀보다 더 멋진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었던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라이선스공연. 서정적인 노랫말, 아름다운 선율, 화려한 춤사위, 다이내믹한 무대연출,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노트르담 드 파리'에 푹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 이영일(중구 영주1동)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가족애와 현실에 대한 풍자를 묘하게 엮어놓은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사이'. 대형뮤지컬의 흥수 속에서 소형 저예산 창작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무대였다.

-배정환(남구 대연4동)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훈훈한 시골 인심이 살아있는 의령의 특별한 하루

여행은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설렘의 연속이다. 1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경남 의령. 1월 한파가 몰아치던 9일, 아침 8시 2009년 첫 여행길에 오른 40여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의령 여행길에 올랐다.

의령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던 홍의장군 곽재우의 충의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다. 테마여행을 시작한지 3년만에 의령을 처음 찾은 만큼 홍의장군 곽재우(1552~1617)와 장수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충익사를 첫 행선지로 잡았다. 충익사에서는 정종규 문화유산 해설사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겨주었다.

“의병의 고장 의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령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의병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관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분연히 일어나 곽재우 장군과 17명의 장수, 수천 명의 의병들이 신출기몰하게 왜병을 물리쳤습니다.”

충익사는 곽재우 장군과 무명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충의각, 기념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곽재우 장군의 전적도, 보물 제 671호로 지정된 장검과 유물, 친필 유묵 등이 소장 전시되어 있다. 충익사에는 1972년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한 의병탑이 단연 볼거리다. 탑의 18개 백색 고리는 곽재우 장군과 17장령을 상징하고 있고 양 기둥은 전의 충전하는 의병이 햇불을 밝히고 있다.

다음 여행지는 이병철 생가. 국내 최대 재벌이 태어난 집에서 부자가 되는 기(氣)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병철 생가에 모여든다. 자굴산 줄기 끝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병철 생가는 대지 568평에 본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곳은 곡식을 쌓아놓은 것 같은 노적봉(露積峯) 형상을 하고 있는 주변 산의 기(氣)가 산자락의 끝에 위치한 생가 터에 혈이 맺혀있어 그 지세(地勢)가 융성할 뿐만 아니라 멀리 흐르는 남강의 물이 빨리 흘러 들어가지 않고 생가를 돌아보며 천천히 흐르는 역수(逆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명당 중 명당으로 꼽힌다. 오랜 세월이 다듬어진 바위가 마치 곡식을 연상

하는 듯한 신기한 모습에 탄성이 이어진다.

이병철 생가의 기운을 한껏 받은 회원들은 일봉사로 이동, 2009년의 복을 기원했다.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갖춘 일봉사는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서기 727년 신라의 혜초스님이 창건한 성덕암이 현재 일봉사의 전신이다.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도 부산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얼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다.

일봉사 답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보낼 산천렵 마을에 도착했다. 여느 농촌마을처럼 젊은 사람들이 없는 산천렵 마을에서는 환갑이 지난 어르신들이 청년이다. 60, 70대 어르신들이 도시에서 찾아온 손자 손녀들을 맞이하듯 부산에서 찾아간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았다. 도심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베풀기가 끝난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놀이에 빠져들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차린 시골정식으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체험 일정을 시작했다.

1년의 복을 기원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짚으로 복조리를 만들고 이어서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가야금은 원래 12줄이지만 창작국악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18현과 25현 등으로 개량이 되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연주한 우리민요로 흥이 오른 어르신들은 정기회원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망개떡 재료를 직접 챙기며 떡 만드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다. 따뜻한 시골 외가의 정겨움이 가득했던 의령의 특별한 하루가 지나고 어르신들과 다음 여행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 2009년 3월에는 고대문화를 꽃피운 **고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2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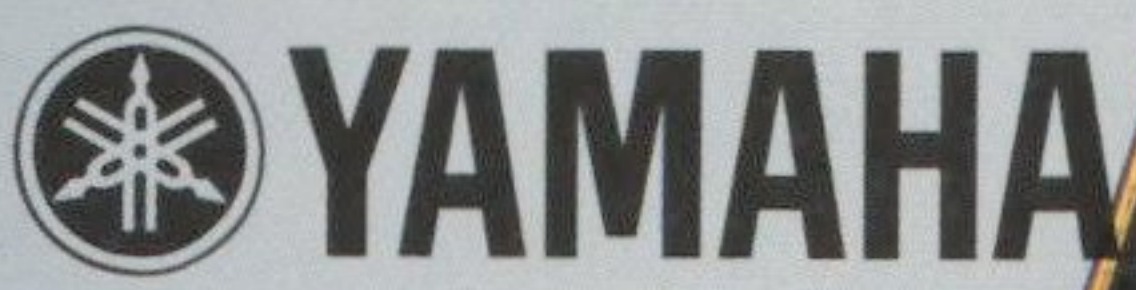
2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곽량교(영도구 청학2동)
김성화(북구 화명동)
김최보리(남구 용호3동)
남경진(기장군 기장읍)
명영정(동래구 안락1동)
박옥경(해운대구 중1동)
박기엽(해운대구 반여1동)
박임숙(남구 대연동)
엄선영(부산진구 초읍동)
황인숙(부산진구 연지동)

엽서 당첨자

김동임(북구 화명동)
김병수(부산진구 양정1동)
김정순(남구 대연3동)
나춘선(사하구 하단2동)
박근영(금정구 남산동)
안인성(금정구 구서동)
양윤복(동래구 사직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최찬조(금정구 구서동)



부산야마하 피아노
**특별
 판매전**



야마하 악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중고 피아노 보상 판매

- 피아노 조율 및 운반
- 1급 피아노 조율 전문점
 - 1급 피아노 조율사 다수
 - 야마하 피아노 테크니컬 아카데미 수료자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북구 야마하 피아노사	051-343-2727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해운대 야마하음악학원(E마트 앞)	051-741-7744
덕계 메가마트 피아노사	

Pianist Hai-kyung Suh Recital

인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카메오 출연

Night and Dream

피아니스트 서혜경 독주회

인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생생한 감동을 무대로

2008년 인기리에 방영되어 국내에 클래식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3회 연속 카메오로 출연한 서혜경.

브라운관에 선보인 그녀의 연주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히 인식되어 시청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그녀에 대한 찬사로 가득찼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그녀의 연주가 빛났던 드라마<베토벤 바이러스>의 생생한 감동이 그대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삶의 소중함을 전하는 의지와 열정의 피아니스트 서혜경

음악의 명문인 줄리어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부조니 콩쿨과 같은 유명콩쿨 우승 등의 성과를 거둔 피아니스트 서혜경. 카네기홀에서 선정한 3대 피아니스트로 왕성한 연주 활동 중 근육파열과 암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지만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2008년 1월 예술의전당 재기무대에 올라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음악가 이전에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서혜경의 깊은 모성애가 슈만과 드뷔시의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묘사한 음악으로 표현되며 투병 기간 중 느낀 삶에 대한 의지와 꿈을 슈베르트와 리스트, 쇼팽의 낭만적인 선율로 관객의 마음속에 감동을 선사합니다.

2009. 2. 21(토)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SMI SMI Entertainment Inc.

주관 SMI SMI Entertainment Inc.



문의 부산인아트 051)632-6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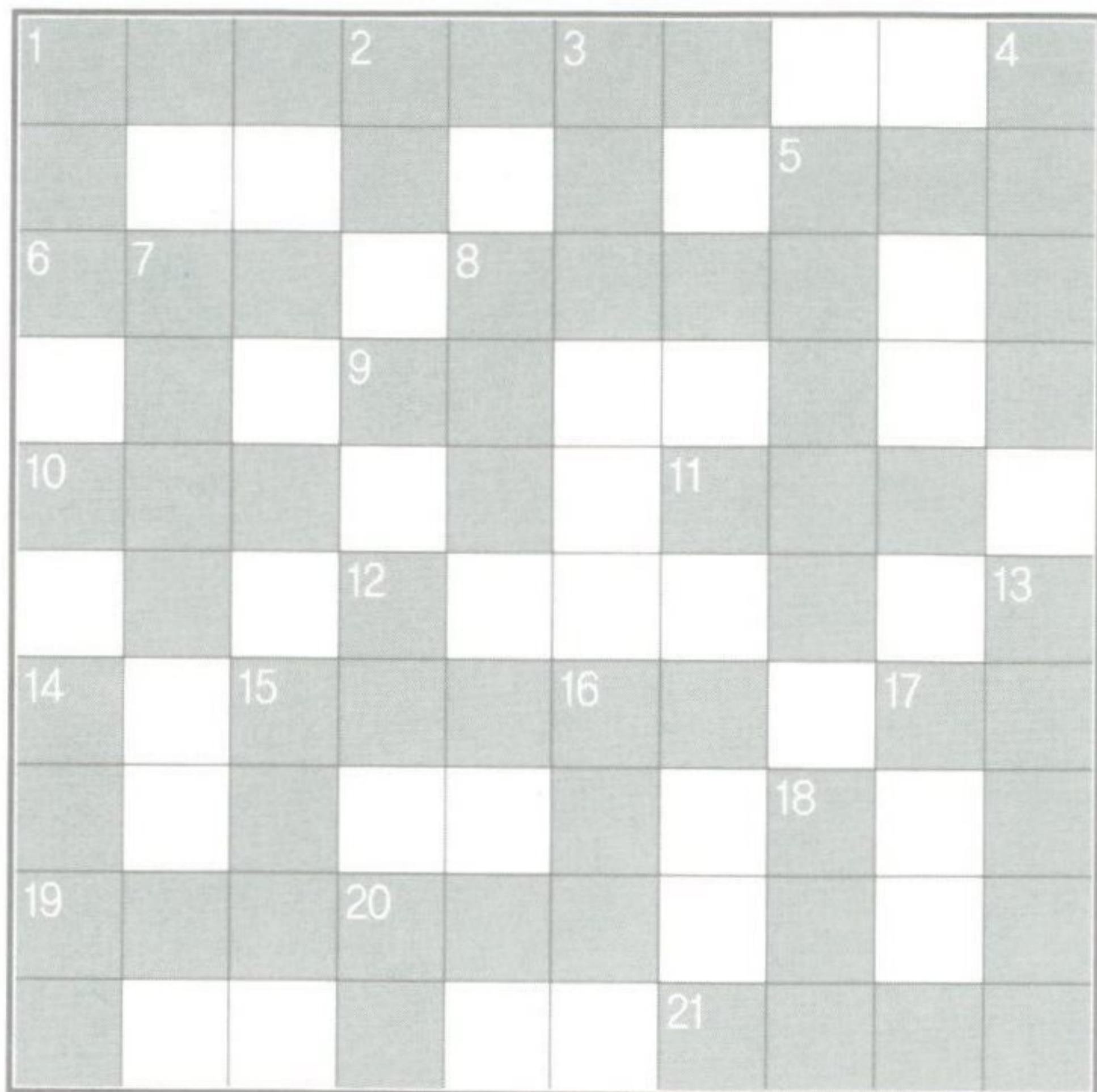
티켓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link 1588-7890

※네이버에 '서혜경'을 치시면 'Night And Dream' (서혜경 블로그)에서
매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서울공연 티켓, 외식상품권,
커피 Free쿠폰을 드립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클래식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비올리니스트. 4집 '미스테리오소' 발매를 기념하는 전국투어 부산무대가 2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영국 출신의 젊은 미망인과 태국 왕과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윌 브리너, 데보라 카 주연의 영화.
- 실직한 철강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벌이는 스트립쇼를 그린 영국의 코메디 영화. 1998년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뒤주속에 갇혀죽었으나, 그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세자로 올려졌다.
- 국제축구연맹의 약자. 4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 를 주관하며, 우리나라는 1947년 6월에 가입했다.
- 1971년 '당산대형'에 출연하면서 크게 인기를 얻은 미국의 영화배우. 이후 '정무문' '용쟁호투' '맹룡과 강' 등에 출연했으며 절권도를 창시했다.
 - 새끼를 낳아서 유아낭에 넣어서 기르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는 동물.
 - 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金星)을 일컫는 말로, 저녁에 개가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바랄 무렵에 서쪽 하늘에 뜬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이다.
 - 살얼음. 근소한 차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2월 1일 정식 출범하는 부산의 새로운 문화기관.
 -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정신분석의 방법을 발견하여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심층 심리학을 수립했다. 저서에 '꿈의 해석' '정신분석학 입문' 등이 있다.

세로

- 영국의 런던 다음 가는 무역항. 비틀즈의 고향으로 더욱 유명하다.
- 1975년 태백산맥의 발왕산 북쪽자락에 개장한 한국 최초의 스키장. 00리조트.
- 이상(李箱)이 지은 연작시. 현실의 부조리, 모순, 혼란 따위를 표현한 시로,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 정숙한 여인의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하다.
-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장편소설. 얼굴이

- 서로 닮은 왕자와 거지가 서로 그 신분이 바뀌어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 이탈리아의 교육가. 아동의 자발성과 자유의 존중, 교육환경 정비와 감각기관의 훈련을 위한 놀이기구 사용을 중시하는 0000식 교육을 창안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개혁과 체계만들기에 공헌했다.
 - 야생동물을 놓아기르는 자연공원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구경하는 일. 원래는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뜻.
 - 낚시 미끼의 하나. 쌀겨에 콩가루나 번데기가루 등을 섞어 반죽하여 뭉쳐서 만든다.
 - 부산문화회관에서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주부 관객층을 대상으로 오전 11시에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2009년 첫 무대가 2월 12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 용왕을 위해 육지로 나간 자라가 토끼를 용궁에 데려오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잔꾀를 부린 토끼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친다는 내용이다.
 -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를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 같은 형식의 건축물. 특히 파리에 있는 것이 유명하다.
 -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흡연, 음주, 성 행위 등을 금한다.
 - 프랑스 무언극에 나오는 어릿광대. 얼굴에 분칠을 하고 원추형의 모자를 쓰며 느슨한 옷을 입는다.
 - 외국에 사는 중국사람.

지난호 정답

간	득	슈	트	라	우	스
절	대	음	감	롤	장	나
꽃		정	본	춘	향	전
	하	이	든	번		칠
페	임	입		지	신	발
	순	록	포	점		
나	레	유	니	세	프	
비	요	가	한	아	사	달
호		환	도	드	리	
과	유	불	급		아	쟁

퍼즐 당첨자 명단

■ 큰집

- 김유진(북구 만덕1동)
박상현(부산진구 전포3동)
성지현(부산진구 부암3동)
이슬비(부산진구 전포2동)
조경남(부산진구 양정1동)

■ 가마골 소극장

- 강남이(사상구 학장동)
김태숙(사상구 학장동)
성영화(동래구 칠산동)
김수진(부산진구 양정동)
박정희(동래구 안락1동)

■ 나랏소

- 김미나(서구 초장동)
박필경(동래구 사직2동)
서은미(사상구 엄궁동)
윤명숙(북구 덕천1동)
이명옥(금정구 장전1동)

■ 공간소극장

- 곽은주(동래구 사직1동)
박근영(금정구 남산동)
박현지(동래구 사직3동)
신영은(동구 초량2동)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 2월부터 동보서적 상품권이 공간소극장 초대권으로 바뀝니다.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최고급 부산지역 공연장이다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식당 연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 정행심 1인극 '망초 꽃 향기'



-가슴속 깊이 꽃히는 진솔한 사랑 이야기-

마흔 한 살 동갑내기 소설가와 목포의 '히빠리 골목'에 있는 늙은 창녀의 하룻밤 사랑 이야기.

▣ 정행심 프로필

- 1981년 극단 마당 단원
- 1982년~1997년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단원

- 1998년~현재 부산시립극단 단원
- 1997년 부산연극제 여자연기상 수상
- 1997년 부산 기자단이 선정한 올해의 여자연기상 수상
- 수석연출/채윤일 · 연출/정순지
- 작곡/백순일(객원) · 무대설치/오영섭, 백길성, 이환희

2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집박/유경조 · 소금/조은경 · 대금/채수만, 강은주, 김수일 · 피리/박춘석, 강영현, 박순자 · 해금/성기만, 김민정, 최윤정 · 아쟁/최희정 · 장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대금독주 '원장현 류' (대금/최재호 · 장구/신문범)

판소리(판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권미정 · 해금/방병원 · 아쟁/홍영혜 · 장구/송강수 · 좌고/최오성)

시나위(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오상훈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해설/백규진

2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버슴새예술단 '전통가락과 춤의 향연'

■ 프로그램

삼도설장고(출연/최정민, 김한동, 성현우, 박정원, 김영찬, 강현미)

한량무(출연/강모세, 최의옥, 장영진)

사물놀이(출연/김대원, 최정민, 김한동, 성현우, 박정원, 김영찬, 강현미)

부채산조춤(출연/조은미, 이남정, 신영지)

판굿(출연/김대원, 최정민, 김한동, 김영찬, 성현우, 박정원)



2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9중주 '조이 앙상블(Joy Ensemble)' 연주회

■ 프로그램

발레 명곡 모음

영화 '스팅' 중 '엔터테이너'

치마로사/오보에 협주곡

헨델/시바 여왕의 도착(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쇼스타코비치/재즈 오케스트라 모음곡 제 2번 중 왈츠 II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차이코프스키/명곡 모음

· Violin 이진화, 배영주, 홍진숙, 우연미 · Viola 유경숙, 황보민정

· Cello 김성덕, 도수경 · Double Bass 장예욱

※특별출연/유종석(오보에), 이은정(피아노)

※해설/이동신

2009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3월 13일(금) 고대문화를 꽃피운 역사의 고장 고령

찬란한 가야문화의 숨결을 따라 떠나는 역사의 고장 고령 역사기행. 520년간 찬란했던 대가야국의 도읍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 선생의 출생지로도 유명한 유서 깊은 고장 고령에서 이른 봄기운을 느껴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대가야전문박물관 대가야박물관-지산동 고분군 답사
- ▷ 12:30 개실마을 도착, 중식
- ▷ 13:00 개실마을 탐방
- ▷ 14:00 개실마을 전통음식 및 농촌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2009년 4월 10일(금) 우리의 삶터 한옥을 찾아서

그 시대의 삶이 녹아들은 한옥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터이다. 아름다운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의 얼이 깃든 문화 유적과 한옥의 정신을 알리고 있는 청도한옥학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청도 도착, 석빙고, 도주관 등 청도 문화유산 답사
- ▷ 12:00 청도한옥학교 도착, 중식
- ▷ 13:00 한옥 이해, 창살만들기, 먹농기, 초익공 해체조립, 떡 만들기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예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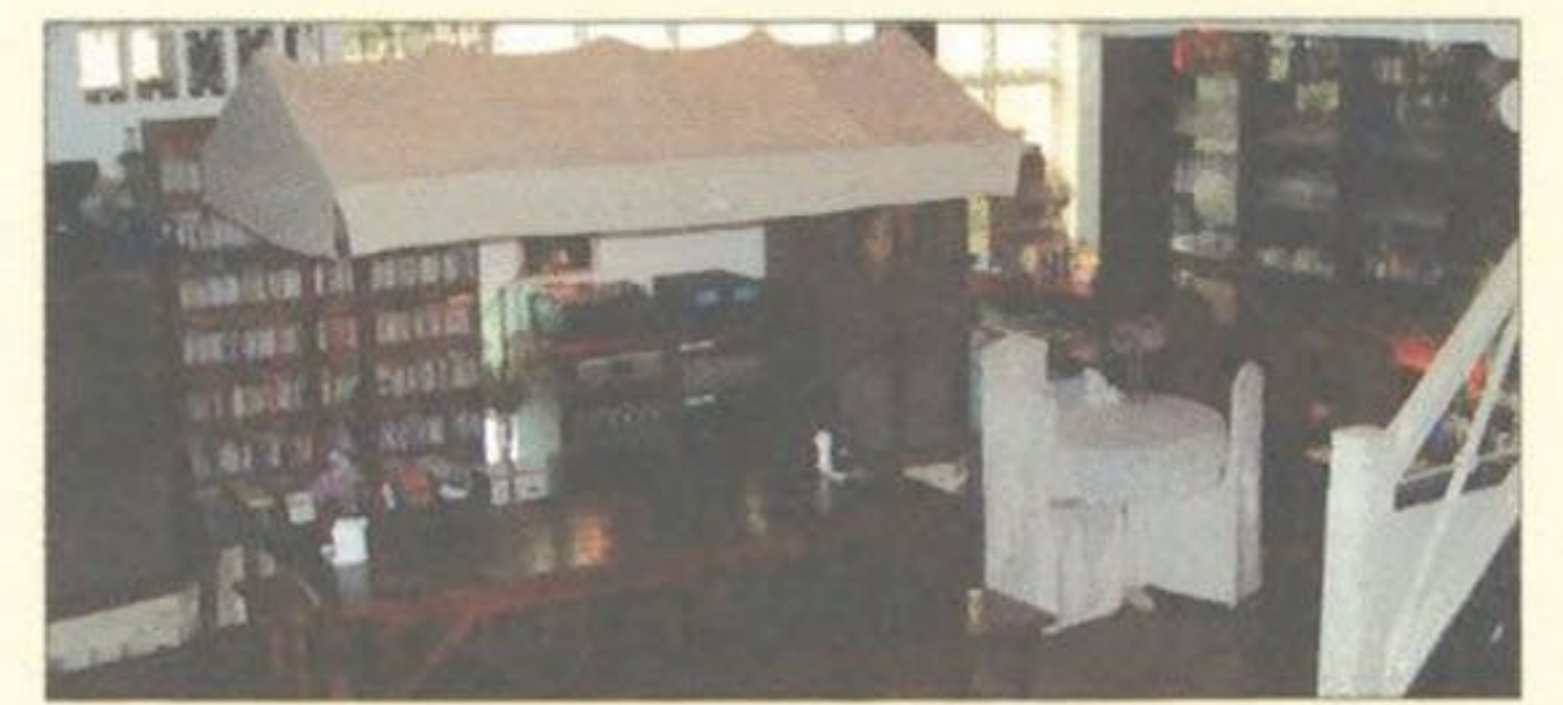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연극 '서툰사람들'

10% 할인



▶ 날짜
2009. 2. 13(금)~3. 8(일)
▶ 시간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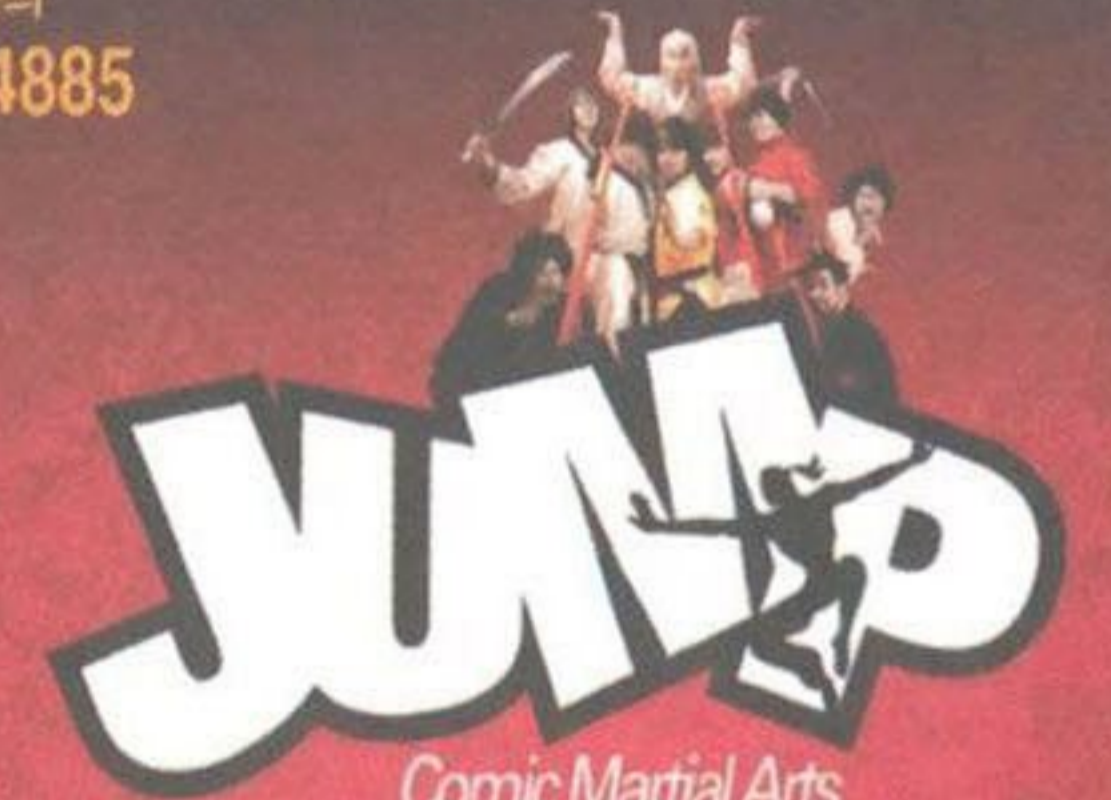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해운대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애드컴과 함께...

☎ 633-2655



학 · 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월 테마여행 응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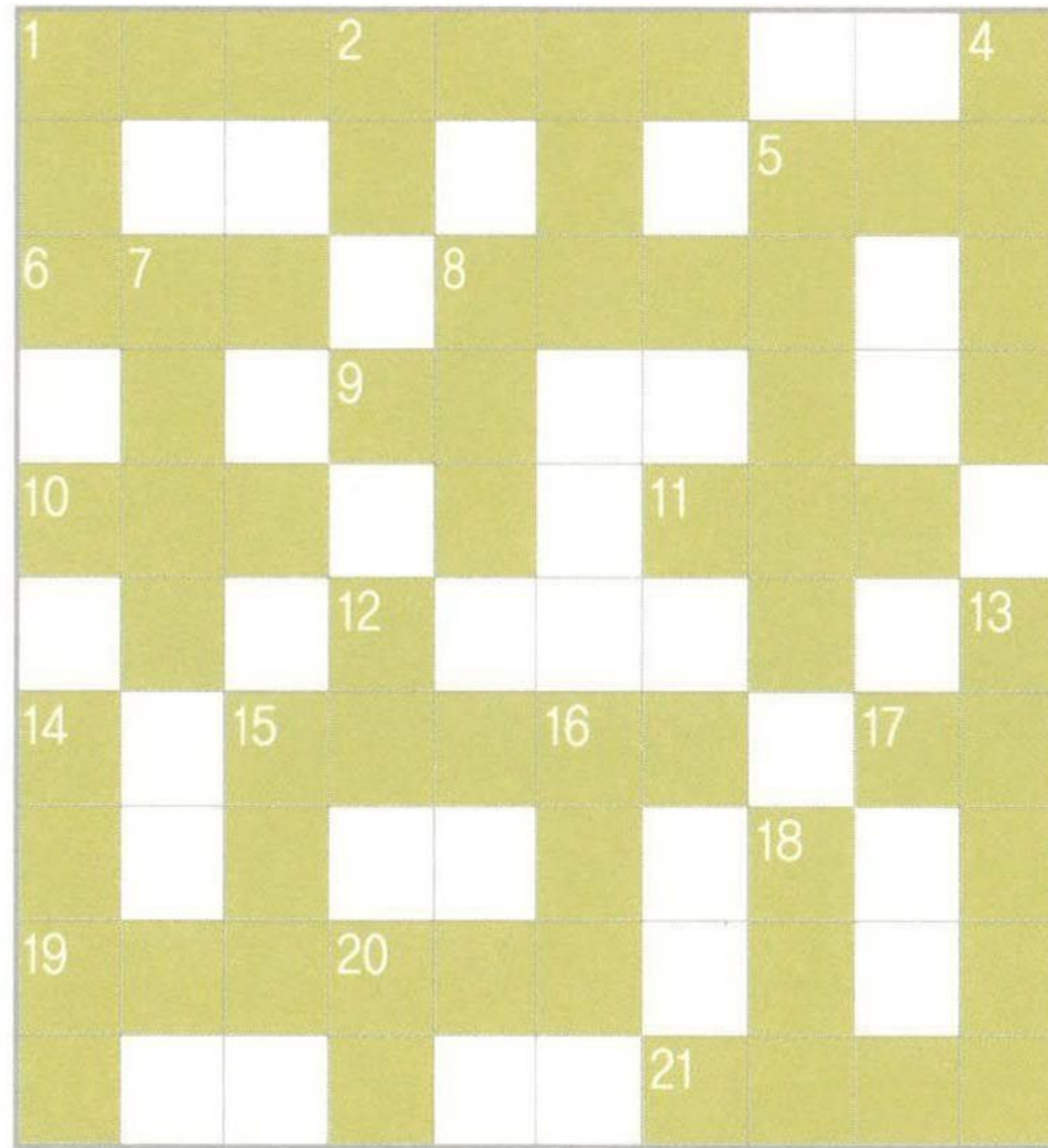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2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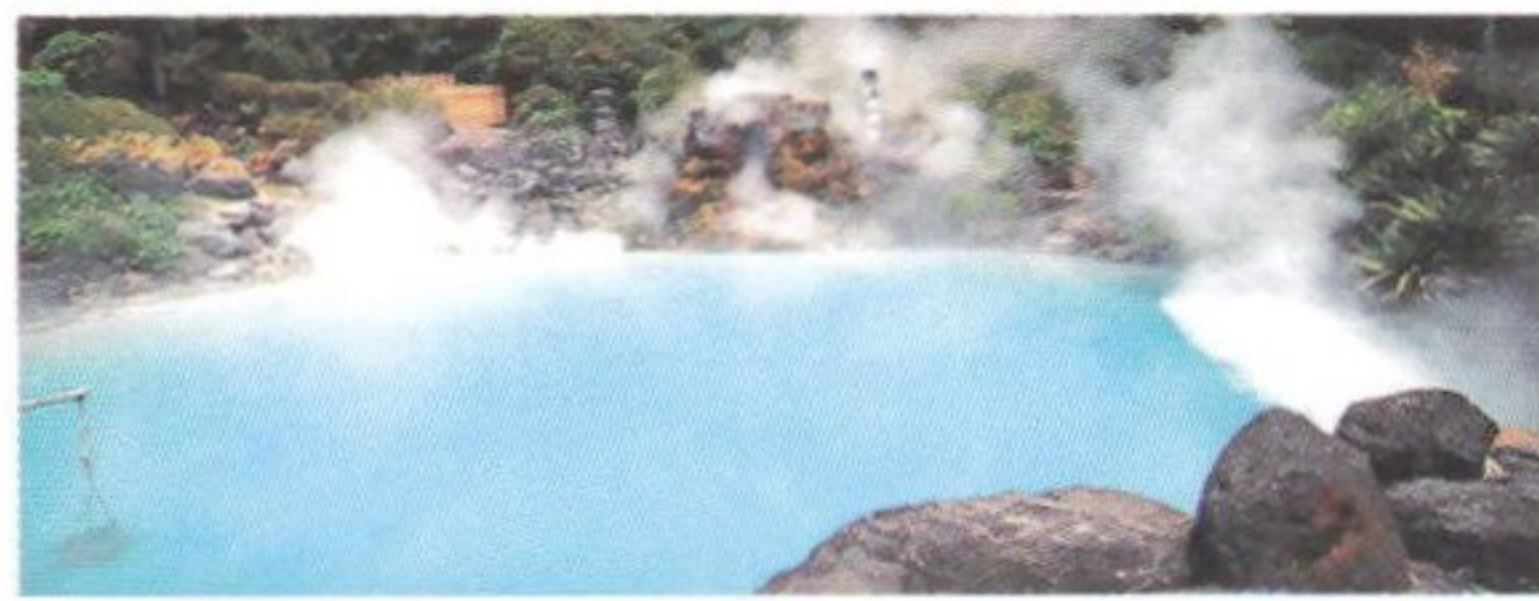
해외여행비 5% 할인 받자!!

*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일본 겨울 온천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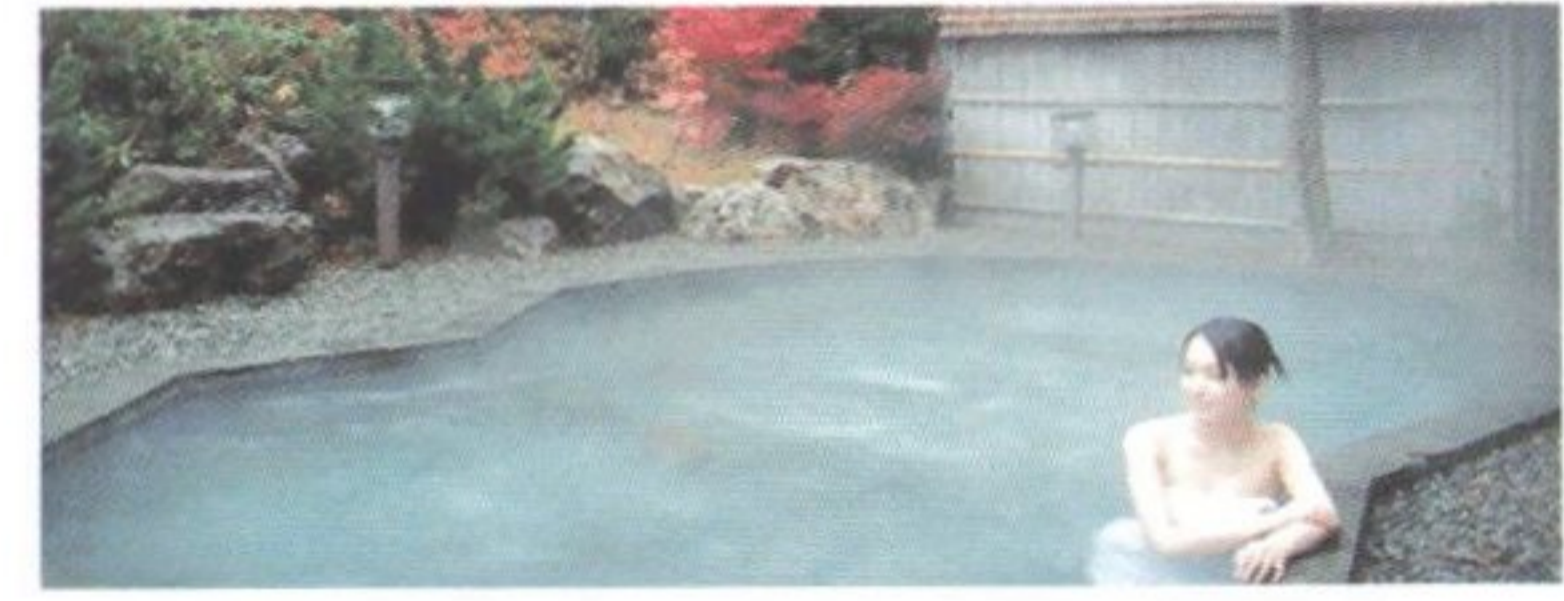
뜨거운 것이 좋아
겨울에는 온천여행



[초특가]
아소/벳부/구마모토 4일
JKP561 36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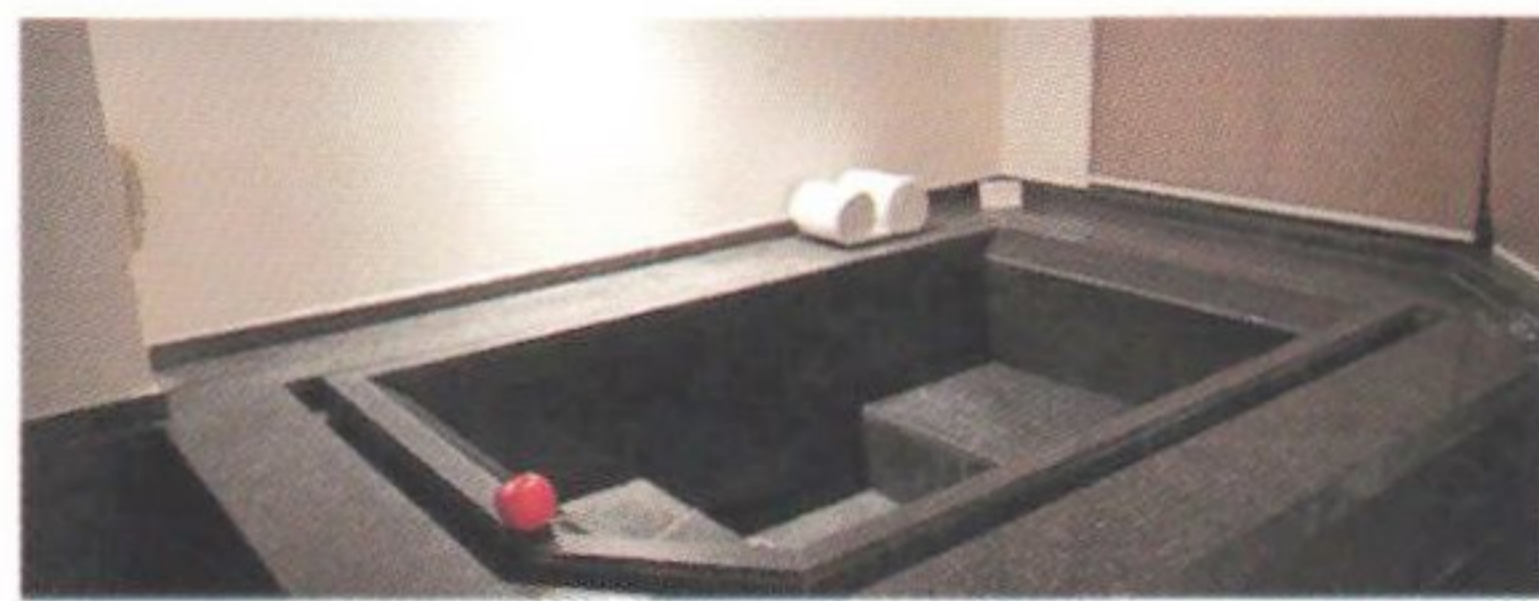
검은 모래찜질
구마모토 3일 온천여행
JNP701 849,000원~



난키(南紀)
이세/쿠마노/시라하마 4일
JHP703 1,229,000원~

중국 겨울 온천여행

따뜻한 겨울을 위한
강력추천! 온천여행



춘취원 호텔
웰빙 북경 4일
CNP751 399,000원~



취(醉) 온천
상해/항주/황산 5일
APP754 499,000원~



중국 2대 古都
북경/서안/황궁온천 5일
CNP799 899,000원~

Green & Clean 싱가포르 여행

맘껏 웃고 맘껏 놀라고
맘껏 즐기는 자연여행



싱그러운 도시
홍콩/싱가폴 5일
ACP702 1,2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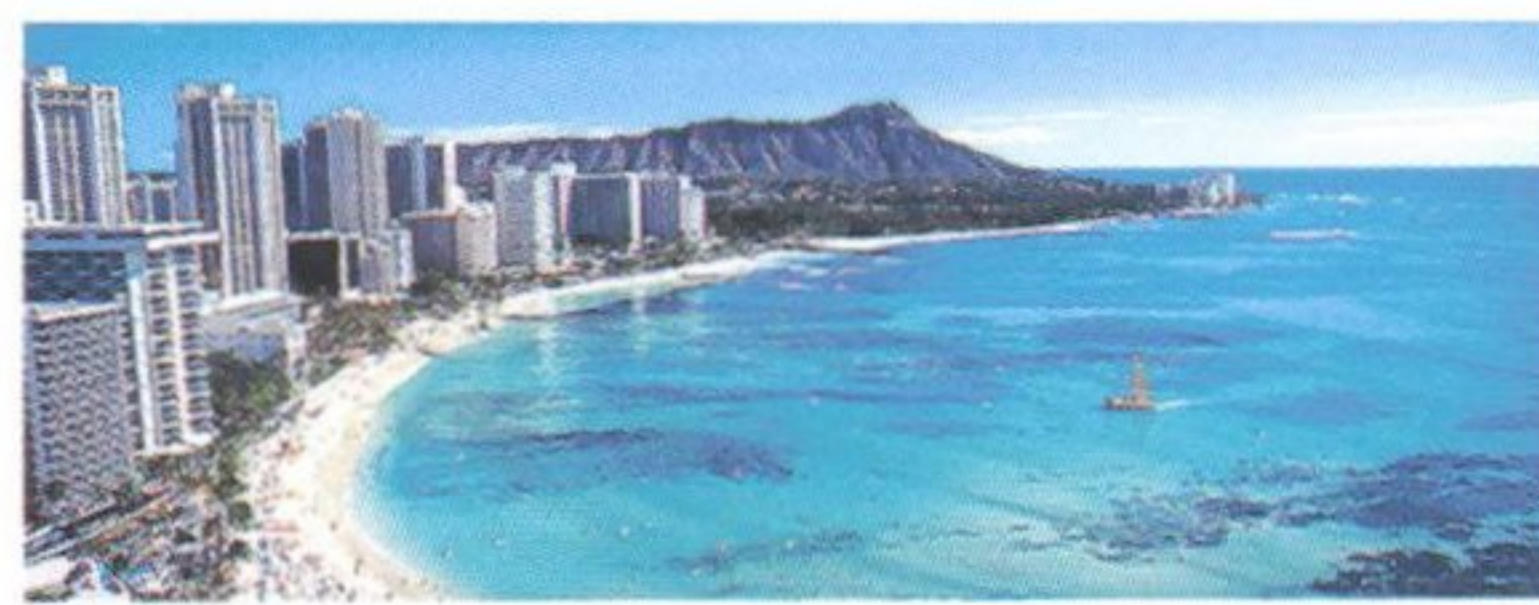
싱그러운 도시
싱가폴/바탐 6일 (홍콩경유)
ACP702 1,349,000원~



동남아 3개국 8일
태국/싱가폴/홍콩 8일
ACP703 1,549,000원~

無비자 미국 여행

無비자로 자유롭게
떠나는 미국여행




홀라~ 홀라~ 환상의 섬
하와이 5일 (Waikiki Resort)
HHP707 1,290,000원~



봉봉~ 신나는
미서부 일주 8일
HUP711 1,590,000원~



아름다운 도시
시애틀/밴쿠버/휘슬러 7일
HUP721 1,890,000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OD Musical Company and CJ Entertainment Presen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왕·의·귀·환
절대적인 뮤지컬의 신화가 돌아온다!

 2009.3.6(금) ~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출연 류정한 / 김선영 / 홍광호 / 김소현 외

시간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6시 30분

가격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70,000원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예매문의 **1644-4484**

예·매·수·료·없·는
가·장·중·은·자·리  AN티켓 을 제보세요!!

인터파크 | AN티켓 | 티켓링크

Conceived by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usse | Music by Frank Wildhorn | Orchestration by Kim Schambeg
Arrangement by Jason Howland | Directed by David Swan